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매스헬스, 내년부터 의료보험사 변경 불가능

저소득의료보험 변경기간 10월 1일부터 90일간. 오바마케어와 유사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특정 사유없이 변경 불가. 꼼꼼한 선택 필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의료 보험가입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험 플랜을 바꿀 수 있었던 매스헬스 의료보험이 내년 1월부터는 최소한 1년간 선택한 의료보험플랜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과 동일하게 바뀌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id)의 매사추세츠 버전인 매스헬스 MCO(MassHealth Managed Care Organization) 플랜에 가입하고 있는 한인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주어지는 보험플랜 선택 기간동안 현재의 의료보험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매스헬스 MCO플랜은 보스톤메디컬센터 헬스넷(Boston Medical Center HealthNet Plan), 네이버후드 헬스(Neighborhood Health Plan), 헬스뉴잉글랜드(Health New England), 팔론커뮤니티헬스(Fallon



매스헬스 MCO플랜의 가입자는 내년부터 보험플랜 변경이 불가능해진다. 임신 계획이 있는 해당보험 플랜 가입자는 반드시 현재 가입하고 있는 플랜이 브리검 앤 워민스 같은 주요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텡스 헬스플랜은 브리검에서 받지 않는다

Community Health Plan), 텡스헬스(Tufts Health Plan), 그리고 셀티케어헬스(Celti-Care Health) 플랜을 말한다.

매스헬스를 통해 위에서 밝힌 헬스플랜 중의 하나에 가입한 한인이라면 이번 변경 기간동안 위의 보험 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내년 한 해 동안은 변경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보험 플랜의 변경을 의미하며 위의 플랜에 가입하고 있는 한인들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1차 진료의(Primary Care Doctor)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의 보험 플랜에 만족하는 한인들의 경우 굳이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변경을 원하는 한인들은 위의 플랜들을 매스헬스 웹사이트(www.mass.gov/masshealth/)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바꿀 수 있다.

특히 보험 플랜을 바꾸는 경우, 새로 선택한 보험이 자신이 원하고 자주 이용하는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MGH(Mass General Hospital)을 이용하길 원한다면 위의 보험 플랜중 이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 변경을 원하는 한인들은 전문가들에게 이를 상담해 보고 향후 가족 계획 등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editor@bostonkorea.com



각 대학들은 보건 및 건강 관련 시설이나 공공장소에 학생들을 위한 무료 콘돔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제공: BU Student Health Service)

보스톤 새내기 학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5가지

마리화나, 이성관계 등 주의 필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한인 유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문제에 크게 당황하는 사례가 많다. 보스톤 대학의 학생 담당 매니저인 펠릭스 씨는 “대인관계, 성문제, 마리화나 및 마약, 소음, 문화충돌 등으로 학생 센터에 상담을 하는 사례가 많다” 고 말했다. 그는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문제가 커졌을 때는 각 학교에 있는 학생지원센터를 방문 해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 고 주문했다. 보스톤에 처음 온 학생들이 겪을 >>8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899
델타 항공 (디트로이트 경유)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617-424-8956

*\$899.00는 델타 항공(디트로이트 경유) 요금입니다. 적용종발일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출발일기준 47일전 예약 필수. 예약상황,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가격 및 규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함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BERKSHIRE HATHAWAY | N.E. Frisco Properties
Euna Jeong

주최 · 콘도 · 미지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GRS, SRES, ABR

617.780.1675
jeong@ownnewengland.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Pre-오답서 제공받기

FDart 방문판매 단지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2.9777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케임브리지 주택공사 렌탈 바우처 대기자 명단 접수

케임브리지 주택 공사 저소득 렌트비 보조해주는 하우스링초이스바우처(섹션8) 접수시작, 10월 한달동안 온라인 및 직접 방문 접수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지역의 터무니없이 높은 렌트비를 상당부분 보조해주는 하우스링 초이스 바우처(HCV/Section8) 대기자 명단 예비 신청서 접수가 케임브리지 주택공사에서 시작된다. 이 바우처는 신청자가 많고 배당수가 한정되어 있어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바우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한인들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4인 가족 기준인 경우 \$49,050이하이면 가능하며 자세한 것은 케임브리지 주택공사 또는 보스톤 코리아 광고(30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는 가족의 최소한 한 사람이 이민 신분은 시민권자 또는 자격있는 이민신분을 소유해야 한다. 하우스링 보조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합법적인 신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케임브리지 주택공사(Cambridge Housing Authority)는 2016년 10월 3일부터 30일까지 대기자 명단의 온라인 예비 신청서를 받는다. 이번 하우스링 초이스 바우처(HCV/Section8)는 테넌트 베이스 또는 프로젝트 베이스 바우처 모두 포함된다.

케임브리지 주택 공사에 따르면 테넌트 베이스 바우처의 경우 대기자 신청자 중 선발되는 사람들에게 이주가 가능한 모빌(mobile) 바우처를 발급한다. 바우처를 배당 받은 한인들은 일반 렌트시장에서 주택을 선택하게 된다. 후에 아파트를 옮길 경우 다른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프로젝트 베이스 바우처는 주택공사가 개발한 아파트에 저렴한 렌트비로 입주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10월 한달동안 접수된 모든 예비 신청서는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하는 로터리를 통해 순위(날짜와 시간)를 결정한다. 케임브리지 주택공사가 적용하는 케임브리지 거주민, 케임브리지 직장인, 베테랑 등 우선순호 조건은 이후에 적용된다. 10월 31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우선순호조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10월 내로 신청하는 게 현명하다.

신청 및 신청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ambridge-housing.org/waitlist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10월말까지 광고에 게재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문의는 617.520.6456으로 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높은 렌트비를 보조해주는 하우스링 초이스 바우처(HCV/Section8) 대기자 명단 예비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다. 사진은 메모리얼 드라이브에 있는 아파트로 프로젝트 베이스 바우처를 받아 거주하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세계한인무역협회 뉴욕지부 차세대 무역스쿨 성료

한인 차세대 교육 받고 창업 경험 벌여
서로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의미도
한국정부는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이하 옥타) 미 동부 9개 지회가 참여하는 차세대 무역스쿨이 8월 25일부터 2박 3일간 뉴저지주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됐다. 보스톤에서는 남병진 한인회 사무총장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옥타의 차세대무역스쿨은 해외동포 1.5~4세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와 국제통상에 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월드옥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해외 한인 청년들을 양성하여 차세대 경제리더로 키우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상품을 세계로 진출시키는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3년부터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기 시작했다.

안병학 보스톤 옥타 지회 회장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스톤 지역의 참가자들을 모집하려 했으나 참가 지원자가 없어 남병진 한인회 사무총장 한 명만 참가하게 됐다” 고 아쉬워 했다.

남병진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번 뉴욕 지회의 무역스쿨에는 차세대 젊은이들 104명과 스텝 60명이 참여했다. 나드리 주얼리 최태영 회장의 성공담, 이근석 호프스트라대학 교수, 김선관 구글 디자이너 등의 강의와 다양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별로 나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으며 다들었다. 졸업식에는 이를 발표했고 많은 아이디어 상품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현장에서 투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남 사무총장은 인적네트워크 형성도 큰 자산이었다고 밝혔다.

차세대 무역스쿨은 그동안 매년 3월~9월 사이에 월드옥타 30개 지회에서 개최됐다. 차세대 무역스쿨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조별로 아이템을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발표해 경합을 벌인다. 각 지회에서 우수한 팀들은 '월드옥타 라이징스타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며, 여기서 선발될 경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금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다.

옥타 관계자들은 차세대 청년 무역인들이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여 각국 주류 사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차세대들이 현지 대형 유



옥타 무역스쿨 후 받은 차세대 기장 임명장을 들고,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남병진 사무총장



옥타의 차세대무역스쿨은 해외동포 1.5~4세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와 국제통상에 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월드옥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통구조 및 틈새 시장에 대한 정보와 마케팅에 필요한 소비자 요구를 파악해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 해외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적의 파트너로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옥타 차세대위원회는 지회별 차세대 무역스쿨 외에 차세대 모국방문, 세계대표자대회 차세대포럼, 차세대 리더스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가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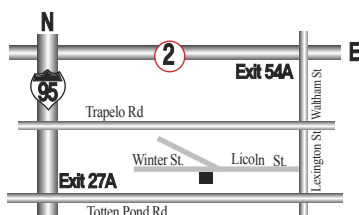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보스톤 공연

미국내 25개 도시, 9월 19일 10월 16일까지
15년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해온 관록의 합창단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한국에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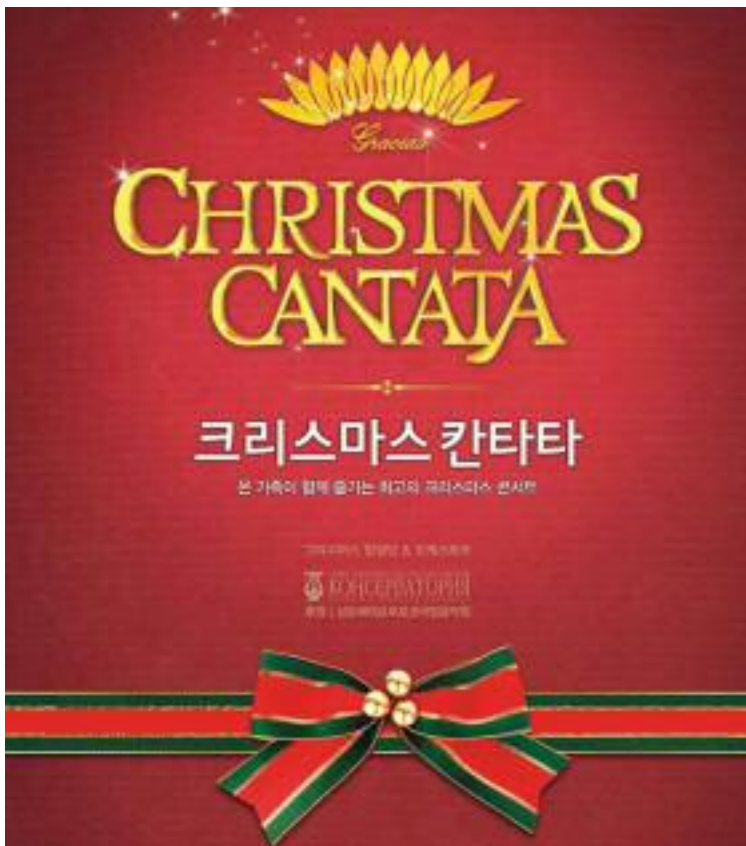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의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10월 13일 목요일 보스톤 소재 레지루이스트랙엔 아슬레틱센터에서 열린다. 입장은 무료다.

약 5천여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레지루이스센터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1막 오페라, 2막 뮤지컬 그리고 3막은 헨델의 오라트리오 메시아를 합창단이 연주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9월 19일부터 샬럿에서 시작, 미국내 25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출발한 청년선교단체인 국제청년연합(IYF)이 주관해서 진행한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합창단은 2000년 창단된 이래 합창음악의 확장성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오페라와 뮤지컬, 합창으로 재연한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15년간 꾸준히 이어왔다.

이 합창단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뉴욕 메디슨스퀘어가든, 비엔나 하이든홀 등 세계 주요 공연장뿐 아니라 중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도 공연했다. 2014년 이탈리아 '리바델가르다 국제합창대회' 대상, 스위스 '몽트뢰 합창제' 1등상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독일 '마르크트오버도르프 국제합창대회'에서 1등상 및 특별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밀알장로교회 남선교회는 9월 11일 선교기금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밀알 남선교회 주최 골프대회 유대근 우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밀알장로교회 남선교회는 9월 11일 헤이버힐 소재 크리스탈 골프코스에서 선교기금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해 2,000불의 기금을 모금했다. 기금은 남선교회가 지정선교지로 헌금할 예정이다.

남선교회 회원을 비롯해 골프동호인 32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유대근 씨는 78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A조에서는 고영수 씨가 1위를, 서

태환 씨가 2위, 김달용 씨가 3위 그리고 신완철 씨가 4위를 기록했다. 장타상은 김병수, 근접상은 박종태 씨가 각각 차지했다

챔피언: 유대근(78타)
장타상: 김병수, 근접상: 박종태
A조 1등: 고영수 2등: 서태환, 3등: 김달용, 4등: 신완철
B조 1등: 황태욱, 2등: 권병욱, 3등: 박정해, 4등: 김경문
bostonkorean@hotmail.com

김치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의 김치제조회사 옥이 김치가 추석을 맞아 한국산 김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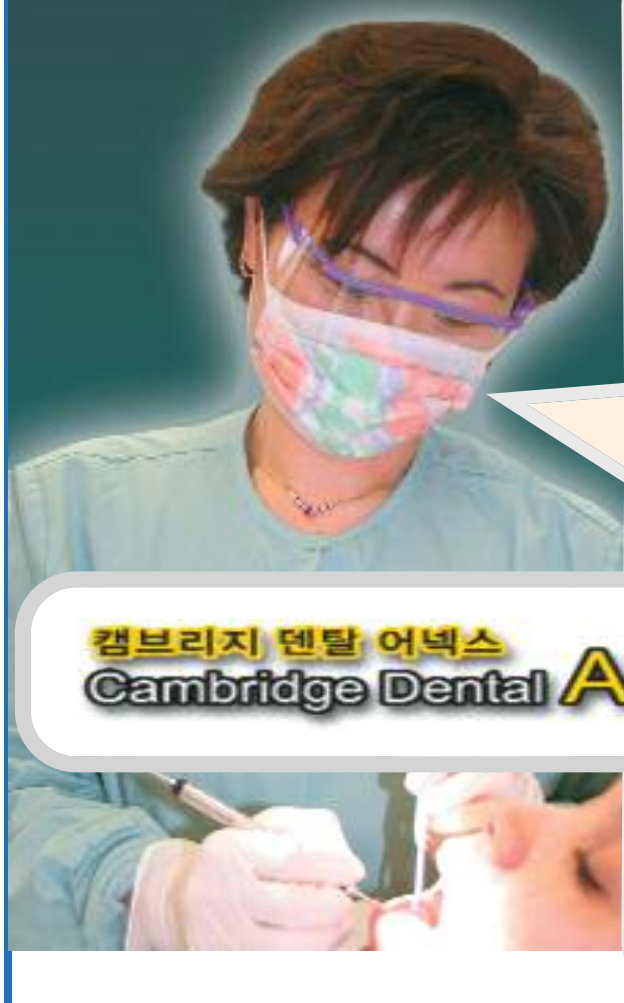
옥이 김치는 9월 16일 17일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울스톤 소재 슈퍼 88마켓에서 배추김치와 총각 김치, 한국산 고춧가루, 그리고 국산 매실 진액을 판매한다. 배추김치는 11파운드에 \$17.95이

며, 포기 3.3파운드의 경우 \$5에 판매한다. 고춧가루도 한국 현지가가 \$35상당에 \$9.95에 판매한다.

이번 김치 축제에서는 판매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16일에 모두 판매되는 경우 17일에는 판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978.866.3663으로 물량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 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우리가족 면역력 지킴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홍삼의
주요효능**

면역력 개선 /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 / 혈당강하,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액순환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기력회복 / 간기능 개선

**240g 홍삼정 구입시
30g(\$31 상당)
추가 증정**

**FREE
GIFT**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서울대 뉴잉글랜드동창회 가을야유회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서울대 뉴잉글랜드동창회 가을야유회 및 임시총회가 9월 10일 60여명이 넘는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데일 공원 (Auburndale Park)에서 개최된 이날 야유회에는 52학번부터 2003학번에 이르기까지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오랜만에 만난 기쁨을 함께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앞에 나와 마이크를 잡고 인사 및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한분, 한분 마이크를 잡고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참으로 좋았다. 그동안 여러 번 만났지만 잘 모르던 동문들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자주 만나지 못하는 동문과 서로 좀 더 친밀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날 모임에는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회보 차기 편집장인 김원영 동문이 뉴욕에서 참석하여 앞으로 동창회보 편집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게임으로 준비한 보물찾기는 추첨으로 많은 동문이 다양한 조그마한 선물을 받았다.



서울대 뉴잉글랜드동창회 가을야유회 및 임시총회가 9월 10일 60여명이 넘는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날 모임에선 이춘선(사 55) 동문이 모친 신좌경 여사를 모시고 나와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신좌경 여사는 현재 만 10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 동창회에 또 다른 기쁨을 선사했다.

야유회에 앞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회장 또는 차기회장 선임시 모든 회원들이 회장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공개적 절차를 마련한다”

라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김인수 동문에게 20년 전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를 창립한 공적을 높이 기려 공로패가 증정되었다. 김인수 동문은 1997년 뉴잉글랜드 동창회 창립총회준비위원장으로 동창회 창립에 기여했다.

정태영 회장은 동창회 운영진으로 이영인 동문 (사대 74년입학), 김제성 동문 (공대 87) 이 소개되었고

, 조진행 (공대 90), 서병철 (약대 90), 남궁범진 (자연 01), 나유선 (음대 02) 동문을 소개했다. 정 회장은 “모임을 위해 이영인, 김제성 동문이 많은 수고를 했다”고 말하고 “이번 야유회 모임을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준 이사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성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올스톤 EBSB 은행 한인 은행원 정종은 씨 인터뷰

“유학생들 미니멈 밸런스 계좌 잘 이해 못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지난해 9월 이스트보스톤세이빙뱅크(이하 EBS 은행)는 올스톤 지점에 한인 직원 정종은(40, Gina Chung)씨를 채용하며 한인사회 및 한인 유학생들에 대한 서비스 확장을 시도했다.

한인 상가와 유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올스톤 지역이었지만 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인은행이나 한인 은행원이 없어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 일부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인 은행원인 정종은 씨가 일을 시작한 지 어언 1년이다. 또한 어김없이 보스톤지역에는 새내기 유학생들이나 새내기 한인들이 등장했을 것이다.

정종은 씨와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점들과 한인 또는 유학생들이 은행관련 실수하기 쉬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EBS은행 올스톤 지점 한인 사원 정종은 씨는 파트타임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근무하고 있다.

-이스트보스톤세이빙뱅크 올스톤 지점에서 일을 시작한지 약 1년이 지났다. 어땠는가?

1년동안 많은 한인 이민자분들과 유학생 및 단기 방문객과 인턴하는 분들을 만났다. 이민 1세대 노인분들은 한국어 서비스에 대한 편리함과 감사함을 칭찬했다. 처음 한국에서 보스톤으로 오는 유학생들에게 빠른 계좌 오픈과 클로징 서비스, 때로는 정확히 몰라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를 안내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한인분들의 관심인, 홈모기지과 사업모기지의 프로세스를 돕는 중간 역할도 해드리고 있다.

-유학생들이 새학기를 시작하는 계절이다. 보스톤에 처음인 유학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있나?

10년전과 비교할 때 유학생들이 영어를 잘 해서 은행 계좌를 오픈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시스템이 다른 미국은행의 미니멈밸런스(minimum balance)

제도는 유학생들이 가장 잘 적응을 못하는 제도다. 설명을 미리 해도 막상 겪어서 손해를 볼 때 피부로 경험한다. 어떤 유학생은 3달을 한국에 다녀오면서 미니멈밸런스 계좌에 넣어두었던 돈이 차츰 없어지고 나중에는 마이너스까지 간 경험이었었다. 무류 체크 계좌는 상관 없다. 하지만 미니멈밸런스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은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초과지출(Overdraft) 수수료에 대한 실수가 잦았는데 이제는 조금 줄어 들었나?

여전히 상당수의 분들이 은행 잔고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서 초과지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 유학생들이 처음으로 오버드래프트한 경우 제가 나서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은행과 한인고객 상의 완충지대 역할이다.

-은행 관련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은 또 무엇인가?

최근 온라인 사기가 횡행하면서 온라인 뱅킹과 관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ID와 비밀번호를 잘못 넣었다가 계좌 자체가 동결(Block)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고가 뜨면 바로 시도하지 말고 충분히 기록을 찾아보고 시도해야 한다. 무리해서 시도하다 동결이 되면 빠른시간 안에 은행에 전화를 해서 풀어야(unlock)해야 한다. 동결이 풀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부분 24시간정도다. 다시 온라인 뱅킹을 시도할 경우 새로운 컴퓨터나 전화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있어서 잘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자동현금인출기(ATM)에서 3번 이상 카드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카드사용이 정지되며 ATM이 카드를 다시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꼭 은행에 찾아와야 한다. 그런데 최근 모든 은행 시스템들이 이 두가지 경우 고객 스스로 계좌 일시정지를 해제하는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고객의 편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될 것이다.

-한인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BS은행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나

EBS은행은 다른 BOA, 시티즌스, 샌탠더 등 외부 은행과 달리 보스톤 지역에서 성장해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이다. 따라서 다른 은행보다 훨씬 고객에 대한 친절도와 서비스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점이 특징이다.

1. 체크계좌로 1센트라도 잔고가 남아있을 경우 아무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또 이자가 붙는 이자수의 체크카드도 무료이다.
 2. 유학생 부인의 경우 은행 계좌 오픈이 어려운데 EBSB는 여권만 가져오면 계좌오픈이 가능하다.
 3. 한국에서의 해외송금시 즉시 받을 수 있고, 주로 현금인출이 목적인 학생들에게는 무료 ATM기가 가장 많다.
 4. 동전들을 모아서 가져오면 수수료없이 지폐로 바꿔준다.
- 9/16 금요일에는 은행에서 새로운 고객을 위



이스트보스톤세이빙뱅크(이하 EBS은행) 올스톤 지점의 한인 직원 정종은(40, Gina Chung)씨

한 프로모션 빅데이가 열린다. 당일 계좌 오픈 시 30불 현금을 선물로 드리며 또 따뜻한 겨울 맞이 플리스 이불 등도 무료로 드린다. 또 2시-5시까지의 보스톤 지역의 다국적인 레스토랑들의 협조로 시식용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그중 본촌(Bonchon)과 코리아나(Koreana) 식당도 참여한다. 또한 간단한 스낵들이 고객을 위해 무료로 준비되어있다.

브라이트 지점: 18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전화: 857-524-1673
 editor@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17일 오후 개학을 앞두고 신입생 환영회 및 반배정 행사를 10일 가졌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신입생 환영회 가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내 5회 교사 연수회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17일 오후 개학을 앞두고 신입생 환영회 및 반배정 행사를 10일 가졌다. 오전에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주최하는 교사연수회가 열렸다.

이성희 리더 교사의 사회로 열린 2016학년도 신입생 환영회 및 반배정 행사에서 남일 교장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효과적인 2세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환영사를 통해 밝혔다.

2016년 가을학기에 새로 등록한 85명의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은 각 과정의 교사를 소개 받았으며 또한 올해 학사일정도 안내 받았다. 이들은 향후 배정될 각반 교실에서 교사들과 면담을 갖고 향후 학생의 지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교사 연수회에서는 김희현 리더교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오인식 NAKS-NE전 회장이 참여해 격려사를 전달했다. ‘함께 고민해 보는 효과적인 2세들의 한국학교 교육’ 이란 주제로 열린 교사연수회는 이정설 교사의 작문, 홍순창 교사의 사

진짜기, 류장한 교사의 학생들의 동기유발, 보스톤건스태드 카이로프랙틱 유정호 박사의 혼자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등의 강연이 있었다.

이어 각 개별반에서 김혜련 교사, 홍순주 교사, 황규라 교사 등이 일선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2세 교육의 여러 분야들을 심도있게 다뤘다.

뉴잉글랜드 지역 최대규모이자 개교 42년의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41개 오전교육반과 태권도, 미술, 동양화반, 서예반, 발레반, 사물놀이팀과 펜싱팀, 골프반, 장구반과 기초중국어반 10개의 오후 특별교육을 합쳐 모두 5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10월 22일에 ‘역사골든벨(2차-삼국시대), 10월 29일부터 3주 동안은 오픈하우스 행사가 각각 열린다. 학교에 관한 문의는 남일 교장 508-523-5389, 이메일 ksneusa@verizon.net 또는 학교 홈페이지 (www.ksneusa.org)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밀알한국학교 가을학기, 송편을 빚으며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주 첼스포드에 위치한 밀알한국학교는 지난 9월 11일 (송편워크샵)으로 가을학기를 시작했다.

개학 첫날을 맞아 각 반에서는 새로운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방학 동안 지낸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또 추석과 송편에 관한 영상을 보기도 하였다.

활동수업 시간에는 추석맞이 <송편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이날 워크샵에는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한순용 회장이 밀알한국학교를 방문하여 감사로 도움을 주었다. 이 워크샵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고유 명절의 즐거움을 몸으로 체험했다.

쌀가루로 떡반죽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송편 속으로 쓰여진 녹두소, 깨 등을 만드는 법, 알록달록 예쁜 색깔을 내는 천연염료 만드는 법 등이 소개되었다. 김현주교장은 이날 사용될 노랑, 보라, 초록의 천연 염료를 하루 전에 호박, 포도, 시금치를 사용해 만들어 준비했다.

강사와 몇몇 부모들의 시범을 보고 학생들은 강아지, 곰돌이 등의 여러 가지 모양의 송편을 창의적으로 빚기도 했다. 학부모들도 여러 색깔의 꽃송편은 처음 만들어 보신다며 신기해 했다. 찜통에서 쪄낸 후의 더 예쁜 색깔의 송편을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나눠 먹었다.

송편을 함께 만든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송편을 빚으며 한국의 추석 명절을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고 가장 어린 아이들도 자신이 만든 송편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아주 기뻐했다” 고 말했다

김현주교장은 “이제 밀알한국학교의 아이들은 추석에 먹는 우리의 떡, 송편을 다 기억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체험 학습활동을 펼쳐 나갈 것” 이라고 했다.

한편, 개학전날인 9월10일에 열린 독도역사세이대회의 시상식에서는 밀알한국학교 학생 두 명이 참가하여 고등학교 부문 2등과 3등상을 나란히 수상하였다. 박정민학생은 <More than just a dot on a map> 이란 제목의 글로 2등상을, 서재영학생은 <The never ending Battle for the Liancourt Rocks> 라는 제목으로 3등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김현주교장은 이 대회를 통하여 아이들이 열심히 자료를 찾고, 독도에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해서 긴 에세이를 쓰기까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정체성과 나라사랑의 마음이 자라남을 믿고,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귀중한 경험이 되는 독도에세이대회를 학생들에게 장려한다고 말했다.

밀알한국학교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수업을 하고 있으며,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김현주교장 (hkimpw@yahoo.com 678-516-4974) 에게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 주 첼스포드에 위치한 밀알한국학교는 지난 9월 11일 (송편워크샵)으로 가을학기를 시작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한국과는 달리 보스턴에서 불법인 것들 미리 숙지해야

▶▶1면에 이어서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보스턴대학교 매사추세츠 주립대(이하 UMASS) 학생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작성해 보았다.

- 마리화나

유학생들이 보스턴에서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마약이다. 유학생 사이에서는 공개적이진 않지만 은밀하게 “마리화나 해봤나?” 고 물어보는 경우가 인사치레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보스턴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라면 마리화나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마리화나를 하는 본 사례는 있을 정도로 쉽게 이뤄지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의료용 이외의 마리화나 사용은 불법이지만 클럽이나 대학가 등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11월에 상업용 마리화나 소비에 대한 주민찬반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마리화나 10g 이하를 소지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주 안에서 상업용 판매가 합법이 되더라도 한국 국적의 한국학생은 마리화나의 사용에 주의를 해야한다. 한국 형법 제 3조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죄도 처벌할 수 있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화나의 사용을 SNS에 노출시켰다가 한국에서 수사를 받거나,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한 사람이 한국에서 다른 문제로 수사를 받다가 마리화나 사용이 발각되어 가중처벌 사례를 받는 사례도 있다.



올 11월에 있을 MA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의 상업적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속인주의의 한국인은 마리화나 흡연시 한국정부에 의해 처벌받는다

마리화나는 흡연이나 흡입 시에 주변으로부터 쉽게 발각될 수 있기에 몰래 하는 것이 어렵다. 마리화나를 태운 연기는 스컹크의 방귀냄새와 유사하다고 일컬어 질 정도로 독한 냄새를 내뿜기 때문에 이웃의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운동능력이 매우 저하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느려져 주변에서 쉽게 알아챌 수 있다. 특히,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에서 운전은 음주운전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위험한 행위다.

- 피임 및 성문제

유학생들에게 닥치는 가장 난처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문제이다. 미국대학협회의(AUU)의 발표에 따르면 하버드, 예일대 등 주요 27개 대학 15만명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성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5명중에 1명인 23%, 강간은 11.7%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들은 미국 명문대학들이 오히려 성폭행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입생 환영회에서의 폭음은 늘 학내문제가 되어왔고, 이에 따른 성폭행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새내기 학생들은 특히 음주와 성문제에 대해 극히 조심스러운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이성과의 교제에서도 성인으로서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성교제를 할 수 있지만 그런것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확한 성지식으로 원



UMASS의 학생교류 담당자 수지영 씨는 멸칭 단어는 물론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태도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치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효과적인 피임방법에 대해 잘모르거나 귀찮아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체외사정이나 월경주기 조절법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미국 질병관리예 방본부의 따르면 이 두가지 피임법의 실패율은 각각 22%와 24%로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피임 실패를 염두에두고 있어야하며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CVS등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 (Morning After Pill)을 72시간 이내의 선에서 가장 빨리 복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Plan B가 있지만 CVS에서도 동일 성분의 유사브랜드를 구할 수 있다. 사후피임약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할인 행사 때 소비약차람 구매해 두면 좋다. 무방비상태로 임신을 확인하게 될



보스턴의 주택은 외관이 목재건물이든 벽돌건물이든 내부는 목재로 구성되어 층간 소음이 한국보다 심하다

경우 반드시 유학생 담당 직원을 찾아 해결방법을 상의해야 한다. 절대 당황하거나 감추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 층간 소음

보스턴에서 유학생들이 가장 적응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층간소음이다. 한국에서도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지만 보스턴 지역의 층간소음은 한국보다 더 심한편이다. 보스턴의 주택들은 외장에 상관없이 내장은 목재인 경우가 많다. 천장과 바닥, 벽이 대부분 목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옆집이나 윗집의 전화, TV, 발걸음 소리 등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만약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경우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미국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쪽지나 이메일같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법적 분쟁에서 가게 될 경우 충분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증거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층간소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쪽지를 통해 알리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메일로 보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서블릿, 룸메이트

보스턴 생활에 익숙해 질 쯤이면 겪을 수 있는 문제는 서블릿 (계약기 ▶▶9면으로 계속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보스턴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턴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1면에 이어서

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대자가 제 3자에게 방을 임대하는 것)과 룸메이트 문제이다. 서블렛의 경우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서블렛을 내줄 경우에는 추가금을 지불' 하기로 되어 있거나 귀찮아서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나 아파트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살다가 발각될 경우에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법정 문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블렛을 내주는 사람도, 들어가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강제퇴거를 당했을 때의 문제다. 대만인 유학생 오웬 씨는 멀쩡히 살던 집에서 쫓겨났던 지난 여름방학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한다. 방학을 맞이하여 귀국했던 친구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월세를 내지 못하고 강제퇴거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에서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주자를 강제퇴거 할 수 없다. 14일 내 퇴거공지(A 14-Day Notice)가 왔을 때는 14일 내로 퇴거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임대가 14일 후에 법적으로 종료된다는 의미이며, 이후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한 법정 소송(Eviction)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강제퇴거 소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7일 안에 소장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퇴거 절차가 진행되기에 소장에 대한 답변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서와 집세 영수증, 기물훼손 기록과 집주인과 주고받은 서면 통신 기록의 사본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인종 차별

'니거(Nigger)' 나 '니그로(Negro)' 는 흑인을 멸칭하는 단어

로 한국에서도 이미 유명하다. 흑인끼리는 장난으로 쓰이기도 하고 흑인협합의 가사에서도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타인종이 쓸 경우 비하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한국인끼리는 야구선수 이대호를 두고 '조선의 4번 타자' 라는 칭호를 쓰지만,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조센징(조선인)' 이라고 쓰면 멸칭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 반대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동양인의 작은 눈을 비하하는 '칭크(Chink)나 슬릿(Slit), 동양인은 시끄럽다는 의미의 '칭총(Ching-Chong)', 서양인을 따라하는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바나나' 등의 비하적 표현을 들었을 경우에는 웃어넘기지 말아야 한다.

UMASS의 학생교류 담당자인 수지 영 씨는 "요즘 학생들은 통신이나 방송의 발달로 멸칭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영어 발음을 조롱하는 투로 발음하거나 인종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며 비하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슬람이나 흑인과 같은 특정인종을 범죄자 집단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고 경고하며 상대방에게 실례를 범하지 말 것과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은

막대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 한국에서 합법이지만 보스톤에서 불법인 것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역사도 문화도 다른 한국과 보스톤인 만큼 한국에서 하던 패턴으로 생활하다가 미국법의 저촉되어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실외에서 음주가 불법이며, 실내에서는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화 통화나 대화를 상대방의 승낙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는 행위는 불법인 것도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녹화의 경우 자기의 영역이 아닌곳에 대한 녹화도 불법이며, 녹화된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는다. 녹취나 녹화의 대상이 경찰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최대 징역 15년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사람이 사는 만큼 인종이나 나이, 종교, 성별 및 성적 취향, 지역에 대해 차별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도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벌금이나 범칙금은 한국보다 최소 3배 이상으로 과중하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전의 주의하는 것이 좋다.

itshunne@bostonkorea.com



사전 허가받지 않은 야외에서의 음주는 불법이며 21세 이상이 아닌자의 음주 또한 불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스톤은 미국 내 최악의 운전자들로 뽑혔다. (이미지 출처 thrillist.com)

또다시 난폭운전 1위에 오른 보스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3년 연속, 매사추세츠 주의 운전자들이 미국 내 최악의 운전자들이므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난폭운전이 심한 곳은 보스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자동차 보험사인 알스테이트(Allstate)의 연간 보고서 "베스트 드라이버 리포트(Best Drivers Report)" 에 따르면 미국 내 유명한 200개의 도시 중 보스톤은 베스트 드라이버 200위로 꼴찌다.

보스톤에 이어 인근의 우스터가 베스트 드라이버 199위에 랭크되었다. 2015년에도 우스터는 199위, 보스톤이 200위였으며, 2014년의 조사에서는 우스터가 200위, 보스톤이 199위였다. 그 외의 매사추세츠 주의 도시 중 하위권에 랭크된 도시는 스프링필드로, 올해의 조사에서 196위에 자리했다.

보스톤의 운전자들은 미국 내 평균보다 167.6% 더 많은 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새로운 사고

가 일어나는 빈도수는 7.1년에 한번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행히도 작년의 3.9년에 한번이라는 기록보다 나아진 수치다.

미국 내 가장 안전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도시는 텍사스의 브라운스빌이다. 브라운스빌의 사고 빈도수는 14.6년에 한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 평균 사고 빈도수의 31.4%에 해당한다. 이어서 2위에 오른 것은 캔자스 주의 캔자스 시티로, 작년의 1위로 조사되었던 것에서 한 단계 하락했다.

반면, 자동차 보험견적비교 사이트인 에버쿠오트(EverQuote)의 지난 7월의 조사에서는 매사추세츠 주의 운전자들이 뉴욕의 운전자들보다는 운전을 양호하게 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을 하는 곳으로 노스리딩이 꼽혔다.

sun@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두통
- 두통, 편두통, 두근거림, 메스꺼움, 어지러움
- 비염, 천식, 알레르기, 만성 스트레스, 항암
-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임신, 갱년기, 여성성 호르몬, 비뇨기 장애
-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
- 기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능성 치료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김동원치과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뉴잉글랜드 소재 대학들 좋은 평가 받아

유에스 뉴스 대학 랭킹 프린스턴 1위, 하버드 2위
인문대학 순위 윌리엄스 칼리지 14년 연속 1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에 미국 최고의 대학들이 집중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올해 새로 발표된 대학 순위에서도 뉴잉글랜드 대학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대학교 랭킹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가 지난 13일, 최신 대학 순위를 발표하였다. 이번 순위에서 하버드 대학교는 프린스턴에 이어 종합대학(National Universities)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예일 대학과 MIT가 10 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고, 텡스, BC(Boston College), BU(Boston University), 노스이스턴 등이 40위 이내의 대학으로 꼽혔다.

뉴잉글랜드의 대학들은 종합대학 순위뿐만 아니라 학부 중심의 인문대학(National Liberal Arts Colleges)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윌리엄스 칼리지가 1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앰허스트, 웰슬리, 미들버리 칼리지가 2, 3, 4 위를 기록했다.

유에스 뉴스는 이번에 대학교 랭킹을 발표하면서, 15개 항목을 기준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졸업 비율(5년 내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비율)과 잔류 비율(대학교 1학년을 마친 후 2학년에 다시 재등록하는 비율), 학부 수업의 우수성 등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주었다.

올해 대학 랭킹을 산정하는 방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수업의 크기(한 수

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에 대한 평가 방법이다. 과거에는 작은 수업과 큰 수업을 다르게 평가했으나, 올해는 하나의 기준으로 수업의 크기를 평가했다.

유에스 뉴스의 수석 데이터 전략가인 로버트 모스는 “수업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새로운 기준에서는 대학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은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 순위는 유에스 뉴스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National Universities	National Liberal Arts Colleges
1. Princeton University (NJ)	1. Williams College (MA)
2. Harvard University (MA)	2. Amherst College (MA)
3. University of Chicago (IL) (tie)	3. Wellesley College (MA)
3. Yale University (CT) (tie)	4. Middlebury College (VT) (tie)
5. Columbia University (NY) (tie)	4. Swarthmore College (PA) (tie)
5. Stanford University (CA) (tie)	6. Bowdoin College (ME)
7.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A)	7. Carleton College (MN) (tie)
8. Duke University (NC) (tie)	7. Pomona College (CA) (tie)
8. University of Pennsylvania (tie)	9. Claremont McKenna College (CA) (tie)
10. Johns Hopkins University (MD)	9. Davidson College (NC) (tie)

미국 종합대학과 인문대학 랭킹에서 최상위 10위권 이내의 대학들



보스톤 등대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다

미국 첫 등대인 보스톤 등대 300주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이자 미국 역사상 첫 등대가 특별한 생일을 맞이했다. 지난 14일은 리틀 브루스터 아일랜드에 위치한 보스톤 등대(Boston Light)가 생긴지 300년이 되는 날이었다.


현재 남아 있는 등대 건물은 1976년에 최초로 지어진 등대 건물이 아니다. 영국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던 등대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에 의해 파괴되었고, 1783년에 미국 정부에 의해 다시 지어졌다.

미국 연안 경비대 소속의 마지

막 등대지기인 샬리 스노우맨은 “300년 전에 지어진 건물 중에서, 처음 만들어진 의도대로 작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라며 “이 등대는 1716년에 항해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는 마티 월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스톤 등대의 3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고, 리틀 브루스터 아일랜드 근처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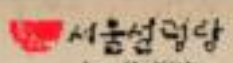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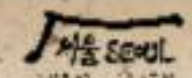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진, 특별, 보양, 유혹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BealBeefSoup.com



서울 or Deacon's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xBistro.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주택, 콘도,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 Sson@ownnewengland.com
Son2323@gmail.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보스톤에 콘도 건설의 바람이 분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보스톤 내 건설 붐이 계속됨과 더불어 개발자들은 이제까지 건설하던 것에서 눈을 돌려 콘도 건설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까지 백배이나 씨포트에 지어졌던 번지르르한 타워건설과는 다른 성격의 개발이다.

보스톤 글로브는 지난 11일 보도를 통해 올해 보스톤 시에 접수된 약 4,000여건 이상의 건축허가 요청의 대부분이 콘도건설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건축허가 요청의 3/4가 아파트임대 건물이었다고 비교해 커다란 변화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시 공무원들과 개발자들은 주택임대시장이 완화되고, 개인 주택소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인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틴 월시 시장의 하우스링 프로젝트 국장 샤일라 딜런(Sheila Dillon)은 “그동안 보스톤에서 구매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찾지 못했던 사람이 많았다. 이제 주택 시장이 그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간정도 가격의 콘도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많다”고 덧붙였다.

보스톤 내에 이미 불고 있던 건설 붐을 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개발의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것이 월시 시장의 정책 중의 하나였다. 시 당국은 오는 월요일, 2011년 이후 10,000 유닛 이상의 주택이 건설된 것과 추가로 건설 중인 7,200개의 유닛, 그리고 17,285개의 유닛의 건설을 현재 검토 중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보스톤 시는 2030년까지 53,000개의

주택 유닛을 추가하겠다는 월시의 목표에 2/3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개발자들은 웨스트 록스 버리에 56개 유닛의 콘도 건물을 짓는 등의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 중개사 회사인 데이비스 코스(Davis Cos.)는 최근 알스톤에 89개의 콘도건물을 개발했다. 또한 사우스보스톤의 워싱턴 빌리지에 들어설 예정인 주택 단지 콤플렉스에는 408개의 콘도와 250개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앤드류 스케어 근처에 건축될 이 주택단지는 지난달 보스톤 재개발 기관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

개발자 데이빗 포고렉(David Pogorelc)은 “굉장히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급 아파트 빌딩이 들어서던 다운타운과 사우스엔드, 펜웨이의 오래된 건물의 임대료가 소폭 하락하거나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도시의 근린개발부서 (Department of Neighborhood Development)는 예측하고 있다. 새로운 건축 붐으로 인해 생겨난 가격인하라며 “우리가 바라던 일이다. 성장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오래된 재고 문제 또한 해소하길 바란다”고 딜러는 밝혔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이웃지역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주로 도심에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2016년 올해에는 69%이상의 새로운 주택 건설이 도심의 변두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딜러는 이와 같은 주택들이 완공되어 감에 따라 집값 또한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정말 좋은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sun@bostonkorea.com



사우스보스톤에 들어설 주택 단지 콤플렉스 워싱턴 빌리지의 예상모습 (이미지 출처: bostonrealestateblog.bushari.com)



9월 보스톤의 임대료는 한 달 전인 8월보다 7% 하락했다. (이미지 출처: Realtor.com)

보스톤 주택 임대료 하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보스톤의 주택 임대료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매거진은 지난 13일 주택 리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ABODO의 자료를 인용해 9월 보스톤의 임대료는 한 달 전인 8월보다 7%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보스톤은 현재 미국 내에서 4번째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ABODO는 지난 8월과 9월 사이 미국 내 주택 임대료의 상승률과 하락율을 조사했다. 보스톤의 경우, 원베드룸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난 8월 평균 \$2,614이던 임대료가 한 달 만인 9월에 평균 \$2,420로 하락하면서 대략 7%의 하락세를 보였다.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인 곳은 평균 임대료가 13%가량 낮아진 시애틀이다. 이어서 산호세와 로스앤젤레스 또한 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보스톤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최근 다세대 주택 건설의 붐으로 인해 임대료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새로운 주택의 개발과 건설은 지역의 주택 시장에 더 많은 공급을 하게 될 것이고

, 이는 현재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고정적 지출을 줄여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다. 미국 전체 평균 원베드룸 임대료는 8월 \$932에서 9월 \$940로 상승했다.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곳은 마이애미로 8월 평균 \$1,599에서 9월에 평균 \$1,739로 9%가량 올랐다. 이어서 베이커스필드,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또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BODO는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평균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소규모 도시와 변두리지역 주민들이 주택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히 대도시 인근의 변두리지역 주민들의 주택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스톤매거진은 전체적인 트렌드는 주택가격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하며, 보스톤의 주택 임대료 하락은 어쩌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sun@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chol@ownnewengland.com, pju@ownnewengland.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클린턴 '건강이상설' 파장... 역대 美 대통령은 어땠나?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개인의 건강은 사적인 영역이지만, 대통령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건강이상설(說)'로 흥역을 치르고 있다.

앞서 클린턴은 자신의 건강이상설을 공세에 활용해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을 향해 "괴상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일축했었지만, 최근 공개석상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후보들의 건강 문제가 미 대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도 건강 문제로 고생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임기 중 질병 때문에 업무를 중단하거나, 심지어 사망한 대통령도 있었다.

1841년 3월 미국의 제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윌리엄 해리슨의 경우 폐렴이 악화돼 취임 한 달 만에 숨졌다. 당시 그의 나이는 68세였다.

12대 대통령 재커리 테일러도 취임 이듬해인 1850년 급성 위장염으로 숨졌다.

29대 대통령 워런 하딩도 취임 후 2년여 뒤인 1923년 8월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뇌출혈로 사망했다. 1944년 대선에서 4선에 성공한 지 불과 12주 만의 일이었다.

이외에도 역대 미 대통령 중엔 건강상 이유로 재임 중 일정기간 업무를 보지 못한 경우가 꽤 있었다.

어려서부터 허약했던 것으로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1913년 취임)은 1919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신체 일부

가 마비됐다. 윌슨은 1921년까지 대통령 임기를 채우긴 했으나 17개월 간 투병생활을 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후문이다.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1955년 9월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바람에 7주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퇴원 당시 의료진은 아이젠하워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진단했었지만, 이듬해 재선에 도전하는 과정에서도 건강 문제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도 에디슨 병 등 다양한 질병을 앓았다. 에디슨 병은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원인이 돼 만성 피로 증후군, 체중 감소 등이 증세가 나타나는 특징이다.

당시엔 케네디의 병세가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훗날 그가 재임기간 중 엄청난 양의 약을 달고 살고, 잦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1960년 치러진 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선 이후 린든 존슨이 케네디의 건강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대통령직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1963년 11월 케네디 암살 당시 부통령이었던 존슨은 이후 36대 대통령직을 승계 받았다.

이밖에 41대 대통령 조지 H. 부시는 1991년 조깅 중 심방세동(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증세)로 쓰러진 적이 있다. 당시 미국에선 덴 케일 부통령의 대통령 권한대행 가능성까지 제기됐었다.

부시는 1992년 일본 방문 때 마찬가지로 중도하차를 하며 실신하기까지 했다.

부시는 같은 해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민주당의 빌 클린턴(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남편)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줘야 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 2012년 뇌진탕 증세를 보인 뒤 혈전이 발견돼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아달 1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 제15주기 공식 추모행사 참석 당시 돌연 증상을 잃고 휘청거리다 급히 자리를 떴다.

캠프 측은 클린턴 후보가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yjyj@news1.kr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고열·탈수 증세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며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뒤 딸의 자택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직 수행하기에 충분히 건강"-의사 소견서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공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주치의는 소견서에서 클린턴이 "증상이 가볍고 전염되지 않는 폐렴"을 앓았고 현재 회복중이라고 썼다. 또 클린턴의 건강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클린턴이 지난 11일 '9·11 테러' 15주기 추모행사 참석 도중 갑자기 어지럼 증세로 휘청거리 자리를 떴고 곧바로 폐렴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로 클린턴은 건강

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클린턴의 주치의인 리사 바르다 박사는 2페이지짜리 소견서에서 클린턴은 "건강하며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썼다. 또 클린턴은 "가벼운 비전염성 세균성 폐렴"을 앓았으며, "항생제 처방을 받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클린턴은 나흘 간의 휴식을 끝내고 1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활동을 재개한다는 계획이

allday33@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857.600.6755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섭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HAPPY HAPPY동상

윤의 617.248.3131 Happytaiway@gmail.com

갤럭시 주춤한 틈에... "애플 아이폰7 주문 종전의 4배"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글로벌 증시 조정흐름 속에서도 애플 주가가 속등해 연중 최고치로 올라섰다. 아이폰7 신모델의 매출 호조 기대감으로 애플 시가총액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6000억달러선을 넘겼다.

14일 애플 주가는 전장 대비 3.54% 오른 111.77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4.6%까지 올랐고 지난 2거래일 동안 7% 넘게 상승했다.

현 주가 기준 시가총액은 6022억 6600만달러로,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5333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의 4383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아이폰7의 선주문이 대폭 증가해 주가를 띄워 올리고 있다. 미 통신업체 스프린트에 따르면 아이폰 7의 선

주문은 지난해 버전 당시에 비해 거의 4배나 많은 상태다. 다른 통신업체 티모바일 역시 선주문이 이전 버전에 비해 거의 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쟁사 삼성전자의 신모델 갤럭시 노트7의 글로벌 리콜도 호재로 작용했

다. 롱바우리서치의 손 해리슨 애널리스트는 "통신사들이 삼성전자 고객들에게 제품 회수를 통보했다"며 "이제 사람들은 다른 곳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kirimi99@news1.kr



페이스북, '네이팜탄 소녀' 사진 삭제 결정 번복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지세계적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아동의 나체가 찍혔다는 이유로 삭제 조치했던 '베트남전 네이팜탄 소녀' 사진 게재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9일 성명을 통해 "어린이의 나체 사진은 대개 우리의 '커뮤니티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고, 일부 국가에선 '아동 포르노'로 취급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건(베트남전 소녀 사진)의 경우 특별한 순간을 기록한 사진으로서의 역사성과 세계적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삭제 결정을 번복키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베트남전이 한창

이던 지난 1972년 당시 AP통신 사진기자 현 콩 니 웃이 네이팜탄 폭격을 피해 도망치는 별거벗은 베트남 소녀를 찍은 것으로서 전쟁의 참상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풀리처상 수상작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지난달 말 노르웨이 작가 톰 에이란이 '역사를 바꾼 전쟁 사진 7장' 가운데 하나로 이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자 '기준을 위반한 부적절한 게시물'이라며 삭제 조치를 취했다.

에르나 솔베이그 노르웨이 총리를 비롯한 각국 네티즌들은 페이스북의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해당 사진은

잇달아 게시했으나, 이 또한 페이스북에 의해 삭제됐었다.

솔베이그 총리는 페이스북의 '삭제 번복' 결정과 관련,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ys4174@news1.kr



아마존 물류센터

아마존, 중국發 배송 개선... 美 해외 직구시장 경쟁 가열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전미 자상거래 최강자 아마존이 경쟁업체들을 따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산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미국 고객들이 늘어, 아마존은 해외 직구 배송 서비스를 개선했다. 중국 판매자들이 아마존에 입점하지 않고 미국 고객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아마존은 소형 상품에 한해,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에게 배송되는데 소요 시간을 기존 8일에서 5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USB케이블, 스마트폰 보호필름, 화장품 등의 항목이 해당된다. 중국 발(發) 배송의 경우 기존에는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걸렸지만 이제 대폭 짧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중국 판매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경쟁사 알리바바, 이베이, 위시닷컴 등은 시장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인들은 해외직구에 올해에만 약 300억달러(약 33조원)를 지출했다. 지난해에 비해 10% 늘었다. 이마켓터 자료에 따르면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해외직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은 지난해 스몰엔라이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로부터 두 달 후 미국인들의 해외직구, 특히 중국산 제품의 해외직구가 크게 늘었다. 아마존의 스몰엔라이트 프로그램은 수천가지의 인기 품목에 대한 무료 배송서비스다. 이들 제품은 주로 10달러 이하의 소형 제품이며 최소 구매량 제한은 없다.

글로벌 제과업체 몬텔리츠 인터내셔널의 닐 아커먼 신임 전자상거래 혁신부서 부장은 "빠른 배송이나 고객서비스 영역에서 위시닷컴이나 다른 업체들은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아마존 재직중 스몰엔라이트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hemingway@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oine Daveluy Parish at Corpus Christi

초대합니다

뉴잉글랜드에 한인 성당이 세워진 지 40년이(1976-2016)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함께 기리고자 합니다.

2016. 9. 25.(일) 11:30 A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 성당
 45 Ash St., Newton, MA 02466

미사 후에 이어지는 다과와 기념식, 그리고 기념품 증정이 있습니다.

연락처: 617.558.2711, office.kccb@gmail.com
 초청인: 주임신부 정광호 도미니꼬, 사목회장 신상철 대건 안드레아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Newton Centre, Newton \$ 1,399,900
 보기드문 전망좋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하숙하기에 좋은 위치.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Newton \$1,300,000
 2가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T 근접), 보스턴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군,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접.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군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군,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협치·민익은 간데없고...100일 20대국회 '3당체제' 성과·과제

14일 내 원구성 마치는 역대 최단 기록 세우며 '협치의 상징' 떠올라 여소야대·대선정국 맞아 유권자들 체감할만한 '체제 위력' 못보여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연설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 국회의원 전원의 선서로 지난 6월13일 문을 연 20대 국회가 오는 20일로 100일을 맞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라는 이른바 '3당 체제'로 시작한 이번 국회는 어느 때보다 정치권 안팎의 흥미로운 시선과 기대를 받았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을 앞둔 가운데 추석 민심박상에 오를 이번 3당 체제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현 3당 체제를 통해 20대 국회가 얻게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우리 국회가 3당 체제로 재편된 건 JP의 자유민주연합이 존재했던 1996년 이후 16년 만이었다.

이렇게 출발하게 된 3당 체제는 각 당에도 적잖은 긴장감을 줬다. 각 당은 '협치'를 화두로 내걸고 가열차게 움직였고, 그 결과 이번 국회는 14일 내 원구성을 마치는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다. 1998년 이후 평균 51일 가량 걸렸던 원구성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최근에도 3당 체제로 인해 풀리지 않을 듯했던 대치상황이 빠르게 종식

됐단 평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1일 있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파동' 때다. 이젠 제3당 국민의당의 중재 역할이 빛났다.

정 의장은 당시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사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논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거론하자 여당은 이에 대해 의장이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났다면 거센 항의를 했다.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지연까지 감수하면서 항의를 이어가고, 더민주가 '무엇이 잘못됐느냐'며 대치하는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양측을 중재해 영킨 실타레를 풀어냈다.

정가 안팎에서는 3당 체제 출범이 아직 녀달밖에 되지 않은 만큼 성과를 반추해보기보다는 눈앞에 놓인 과제들을 더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와 여야 모두 3당 체제로 인해 생겨난 '협치'라는 새로운 정치의 룰에 적응하는 일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 당이 3당 체제를 맞아 협치를 외치고 있고 일부 성과도 있지만, 총선에

서 3당 체제를 만든 유권자들이 '3당 체제의 위력'을 체감하기에는 현재까지의 성과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일단 각 당이 협치라는 새로운 룰에 학습이 덜된 가운데, 2000년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맞게된 여소야대 정국과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정국이 막힌 듯한 느낌도 준다는 말까지 나온다. 서로 간 '자존심 싸움'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론분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논란, 서법관 청문회 등이 자존심 싸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 12일 청와대 영수회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현 3당 체제 상황에 대해 "각 정치주체들이 3당 체제에서는 본인들의 목소리만 내서는 일이 풀리지 않고, 원하는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한다는 걸 배우는 '러닝프로세스(Learning Process)'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내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3당 체제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다수가 없는 것으로, 협치라는 걸 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는 대통령과 여야 모두 기존 양당체제에서 있던 '정치게임의 룰'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

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주체 모두의 역할이 한발짝씩 앞으로 더 나아가야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특히 정부·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3당 체제를 만든 민심(民心)을 받들면서 이 상황을 유연하게 해결해나가기려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정희 교수는 "협치는 단순히 의회 내에서, 정당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중요행위자인 대통령도 협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야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지, 권력누수, 지면 꺾인다는 식의 생각만 해선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내영 교수 또한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내영 교수는 그러면서도 "현재 야당은 다수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여당과 다소 다른 점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야당 내에서도 내년 대선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하다보니, 여당과의 협력이 중요하지 않아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당의 '3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향후 무엇이든 3당으로서의 새로운 정치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거대 양당 사이의 교착을 푸는 역할을 했을 때 국민의당의 미래가 보일텐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병렬 산부인과

“여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임산부 산전후 관리 및 분만

- 임신진료
- 초음파 검사
- 출산 케어

전 연령대 여성들을 위한 포괄적 진료

- 자궁암 검사 및 예방 주사
- 부인과 대소수술
- 각종 성병 검사, 치료
- 각종 피임법 및 갱년기 장애

지금 전화하세요 **781.787.3003**
다음날 예약 진료 가능

Women's Healthcare of Woburn

444 Washington Street, Suite 100
Woburn, MA 01801
www.billchunmd.com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SEP. 16TH - SEP. 22ND, 2016

JAPANESE KIMCHI PANCAKE

Make the pancake that's a meal!

H마트 스타일 퓨전요리! 일본식 부침개 오코노미야키에 우리 입맛에 맞는 김치를 넣어서 만든 색다른 맛의 김치 오코노미야키를 즐겨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Fuji Apple 후지 사과 \$1.49 lb.	Ginger 생강 \$0.88 lb.	Kabocha 단호박 \$0.88 lb.	NEW CROP Oriental Sweet Potato 햇고구마 Medium Size \$1.79 lb.	Nagaimo 일본 마 \$3.99 lb.
Purple Sweet Potato Hawaii 보라색 고구마 \$1.99 lb.	ZESPRI Sun Gold Kiwi 제스프리 썬 골드 키위 \$21.99 box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3.99 8oz / pkg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컬리 \$0.88 lb.	수녀원 콩두부 SOONYEWON Tofu All Varieties/14-16oz \$0.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oneless Beef Rib Eye Steak 뼈없는 등심 스테이크 8oz \$8.99 lb.	Pork Spare Ribs for BBQ 백배큐용 돼지갈비 \$2.99 lb.
Rind-on Pork Belly Chunk 껍질있는 주육용 생선갈비 \$5.99 lb.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나염살 스테이크) \$6.99 lb.
Chicken Drumstick 지근 드럼스틱 \$1.49 lb.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6.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OKOR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황두부) 15 lb. \$9.99	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15 lb. \$9.99
CJ Cooked White Rice CJ 백인 밥스 7.4oz x 12ea/box \$14.99	DAECHUN Seasoned Pastured Seaweed Laver All Varieties - 8.7oz x 10ea/box \$9.99

ONLINE ONLY BACK TO SCHOOL

DON'T MISS OUR LIMITED TIME SUPER SALE ONLINE!

1. 매주 전지역 1st 배송비 \$5, \$100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2. 박스상품 세트상품 할인 및 무료배송
3. 반투스물 인기 상품 특별세일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hmart.com/shopping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Salted Yellow Croaker 식안 참돔 \$5.99 lb.	Cooked Chilean Mussel Meat 갈레션 홍합살 60-100% \$3.99 lb.
Scallop 조개 관자 40-60% \$5.99 lb.	Cod Fillet 미구 전갈 \$6.99 lb.
Cooked Whole Short Neck Clam 생바지락 21-20% 2 lbs. - pkg. \$2.99	SUHYUP Sea Squirt Block 생동 멍게 1.1 lbs/pkg. \$10.99

KADONA Pure Sesame Oil 가도미 참기름 68oz \$14.99	KOKOMAN Oyster Sauces 계피산 굴소스 12.8oz ea. \$1.99	ESENCIA Grapeseed Oil 에센시아 포도씨유 3.68L ea. \$4.99	HOUSE FOODS Chinese Mabo Tofu Sauce 짜장수 푸드 마파두부 소스 1.54 lb. \$5.99
SHIRAKU Japanese Style Sarukoya Udon Noodle 우동 14.7oz ea. \$3.99	HAJOREUM Canned Boned Mackerel Pike 멸치 통조림 14.7oz ea. 2\$3	UT Sweet Korean Pancake Mix 원인 콩떡이도 호떡 믹스 14.7oz ea. \$3.99	CROWN Choco/White Helm 크라운 초코/화이트 허렘 10oz. \$3.99
SANGARIA Ramune Drink All Varieties - 8.7oz ea. x 6ea/pkg. \$5.99	BOUNTY Paper Towels 대용량 휴지 12x16/pkg. \$14.99	YEOCHOME 3-Tier Electric Food Steamer 3단 전기 쪄기 1.11L/15.5L ea. \$22.99	KOMAX Drippings Eco-Food Crisler 코맥스 데리프링스 에코는 스키 4.93oz ea. \$1.99
			HELLO HOME Pot 헬로홈 냄비 5.5L/20oz ea. ea. \$12.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typo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마트는 모든 상품에 대해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결제, 계좌이체를 지원합니다. H마트는 모든 상품에 대해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결제, 계좌이체를 지원합니다. H마트는 모든 상품에 대해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결제, 계좌이체를 지원합니다.

추석 밥상에 오른 정치권 키워드는?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여야 정치권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 14일 국민들의 추석 밥상에 오를 화제가 무엇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석민심'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운영의 바로미터가 될 뿐만 아니라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선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추석을 앞두고 각종 이슈를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의제화'에 집중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주 지진에 따른 '국민 안전'... 그리고 '원전'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추석 밥상에 오를 '정치권 키워드'는 경주 지진에 따른 '국민 안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주제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부상자 14명, 건물균열 등 재산피해 642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야 지도부는 지진 발생 이후 앞다퉈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 정부의 이러한 대응을 질타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김무성 남경필 원희룡 등 여권의 대권주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목소리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메시지를 내었고, 문재인 안철수 김부겸 등 야권 주자들은 일제히 경주를 찾아 피해 현장과 원자력발전소 등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했다.

특히 야권 주자들은 국민안전처의 뒤늦은 메시지 발송 및 홈페이지 먹통 등에 대해 "맹탕이 보여주는 무능이 더 걱정"(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이가 없다. 반성해야 한다"(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지진 발생 직후 상황 보고를 받고 관련 부처에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이어 13일 오전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적극 나섰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지진을 거울삼아 원전, 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앞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묵은 논란인 원전을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등 노후원전의 즉각 가동 중단과 원전 주변지역 단층대 정밀조사, 부·울·경 지역에서의 추가 원전시설 건설중

단을 촉구했다.

◇北 5차 핵실험과 끝 모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쟁

경주 지진으로 인해 잠시 뒷전으로 밀린 '북핵'과 '사드 배치' 논쟁도 추석 밥상위에 오를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했던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흐른 지난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정치권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도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북 강경 노선을 둘러싸고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북핵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여야간 공방은 거세지고 있는 흐름이다.

실제 지난 1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간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추미애 더민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드 등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날선 설전을 벌였다.

당시 추 대표가 "안보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 안 된다"라고 지적하자, 박 대통령은 "미국, 일본,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하는데 그 나라들도 안보를 이용하는 것이냐. 이 심각한 상황을, 안보를 이용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정면 반박하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권은 물론 야권 일각에선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술핵 재배치 등 자위적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내년 대선과 여야의 상대 텃밭 노린 동·서진 정책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얘기는 빼놓을 수 없는 얘기거리다.

현재 여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세론을 중심으로 김무성 남경필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정우택 등이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우선 더민주 내에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 전 대표를 비롯해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의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혈투가 예상된다.

20대 총선에서 3당 체제를 이끈 안 전 대표와 또 다른 '제3지대론'의 중심에 서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은 야권 대선구도의 상수다.

이와 함께 헌정 사상 최초의 호남 출신 보수 정당 대표(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TK(대구·경북) 출신 여성

야당 대표(추미애 더민주 대표)라는 당 지도부간 맞대결 구도도 흥미로운 대화 소재다.

현재 이·추 대표는 모두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호남을 겨냥한 서진(西進) 정책을, 추 대표는 영남권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동진(東進)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한파가 불려온 한진해운 사태도 또 하나의 화제다.

지난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대란이 초래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는 사재를 출연하면서 경영정상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당장 필요한 자금엔 턱없이 부족해 경영정상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대체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의 경우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하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폭염은 물러갔지만, 폭염이 가져다 준 전기요금 고지서는 논쟁거리로 충분하다.

지난 1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기요금이 전월인 7월보다 50% 이상 늘어난 가구가 871만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50% 늘어난 가구는 504만가구로, 올해보다 36만가구 적은 수치다.

증가 가구 가운데 요금을 10만원 이상 더 낸 가구는 6.9%인 60만2000가구로, 이들 가구의 평균 요금은 17만2000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8000원가량 더 많이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차정부 인사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도 또 다른 관심 대상이다.

현재 우 수석과 관련해선 처가 부동산 매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야당으로부터 사퇴 공세가 몇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우 수석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선을 그은 만큼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우 수석의 입지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 운영위에서 우 수석을



동해안에 건설된 고리원전 1~4호기. 한국의 동해안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대로 알려져 있다

증인으로 채택, 출석 여부는 물론 우수석의 거취에도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시달렸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문제도 추석 밥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당초 추석 민심을 자극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추석 연휴이후로 미룬 상태다.

야3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김 장관 문제가 정국의 이슈가 되는 것은 물론 김 장관의 검증한 우수석의 책임론 공방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gayunlove@news1.kr

"민심 흔들릴라" 여야, 추석 앞두고 지진대처 쟁점

(서울·경주=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야는 13일 경북 경주에서 전날(12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각각 소집해 지진 발생 뒤 정부 대응의 미숙함을 질타하는 등 대책 마련 논의에 집중했다.

특히 여야는 지진 현장인 경주를 찾아 피해 지역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가 하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안전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3당 지도부, 긴급회의 개최...정부의 미흡한 대응 질타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기존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을 의제로 정책 당정협의를 예정돼 있던 것을 지진·안전까지 범위를 확대해 열어 지진발생 현황과 현재 대응, 향후 대책을 꼼꼼히 따지고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날 저녁 지진이 발생하자 심야에 국민안전처를 방문했던 이 대표는 회의에서 "올 여름 폭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문자를 많이 보냈던 안전처가 정작 가장 큰 재해 때 제대로 문자 알람을 하지 않아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국민안전처의 재난 문자 능력발송과 홈페이지 먹통 사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계측 이래 가장 큰 강진이 처음 발생해 정부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되지 않는다. 발생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안전처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향후 관련 매뉴얼이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는 지진으로 인한 국민안전이 비상시국"이라며 "정부의 대응은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인사를 가진 뒤 주황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나사 하나라도 이상이 있는지 다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도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이날 국회에서 긴급비대위-의원연석회의를 열어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도 지진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느낌"이라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지진 발생 직후 국민안전처를 방문했던 주 직무대행은 "국민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더욱 그 체감이 컸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며 "(원전은) 아무리 내진설계가 잘됐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mith@news1.kr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한국식당

보스톤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80,000**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700,000**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9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LISTINGS

1. Full Plant 클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톤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급매**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6.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7. 보스톤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8.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9.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
10.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12. 마림 식품 : Allston **SOLD**
13. Single Family : 4 Bed, 2 Full Bath, 2,130 SF. 64 Oak St. Newton **SOLD**
14.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15. Condo : 47 Gordon St. Unit 1 Allston **SOLD**
16.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
17.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
18.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
19.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

나원태: 617.642.3156
신보경: 508.361.6064

제이슨전: 617.642.5670

여야 "무방비...골든타임 놓쳐"...정부 지진대처 맹질타

각각 긴급 회의 개최 및 원전 안전 점검 위해 방문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여야는 13일 경북 경주에서 전날(12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여야는 특히 전날 지진 발생 이후 정부 대응의 미숙함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기존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을 의제로 정책 당정협의를 예정해 있던 것을 확대해 지진·안전까지 범위를 확대해 개최한 것이다.

전날 저녁 지진이 발생하자 민생탐방 일정을 조정해 심야에 국민안전처를 방문했던 이 대표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지진 발생 현황과 현재 대응, 향후 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어보면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 능동발송과 홈페이지 먹통사태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올 여름 폭염 때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문자를 많이 보냈던 안전처가 정작 가장 큰 재해 때 제대로 문자 알람을 하지 않아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계속 이래 가장 큰 강진이 처음 발생해 정부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납득되지 않는다. 발생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

하라"고 촉구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지진이 역대 최강 지진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경주 지역의 피해 최소화과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제, 사회적 피해의 발생도 예상될 수 있는 만큼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안전처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향후 관련 매뉴얼이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민생이 비상상황이다. 북핵실험으로 국민안보도 비상상황"이라며 "이번에는 지진으로 인한 국민안전이 비상시국이다. 이제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컨트롤타워가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정부의 대응은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쳤다. 두 차례의 최대규모 5가 넘는 지진강도가 있었음에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는 지진발생 후 3시간여 동안 먹통이었다"면서 "세월호 이후 변한 것은 국민이지, 여전히 정부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는 국민 여론과 비판도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무엇보다 지금 벌어지는 위기상황에 대해 정부는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위협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인사를 가진 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추가적인 상황보고를 받고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당부했다. 추 대표는 통화에서 "나사 하나라도 이상이 있는지 다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더민주는 또 부산시당위원장이자 당 최고위원인 최인호 의원을 비롯한 PK(부산·경남)지역 의원들 및 문재인 전 대표가 원전의 안전점검을 위해 경주 월성원전과 기장군 고리원전을 찾았다. 김부겸 더민주 의원도 오후에 경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이날 국회에서 긴급비대위-의원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이 시작된 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던"며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도 지진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느낌"이라고 정부의 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진 발생 직후 국민안전처를 방문했던 주 직무대행은 "국민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더욱 그체감도가 컸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 직무대행은 또 "경주 인근은 지진 다발지역일 뿐만 아니라 인근 월성·고리·울산 등 원전과 방폐장 밀집 지역인 데다, 앞으로 신고리 5, 6호기를 추가로 건설할 지역"이라며 "아무리 내진설계가 잘됐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새벽부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오세정 의원 등이 월성원전을 방문한 데 이어 안철수 전 상임대표도 경주를 찾아 원전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할 계획이다.

gayunlove@news1.kr



13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조사원들이 13일 경북 경주시 첨성대에서 강진에 따른 피해 조사를 하고 있다. 신라시대 지진설계를 한 선조의 유산과 2016년 사다리 정비가 묘한 대조를 이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9명 중 5명이 꺾석... "원전 안전 공백"

후임자 미임명시 기존 위원 임기 연장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 사태로 원전 안전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원자력 안전규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안위 위원들의 꺾석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를 방지하고 있는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현행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4명과 정부 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중 현재 5명이 꺾석 상태로, 회의 개기도, 안건 의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5명은 김광암(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최재봉(성균관대 교수), 나성호(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학교 대우교수), 김익중(동국대 교수), 김혜정(환경운

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위원 등으로 지난 8월 초 임기가 만료돼 모두 물러난 상태다.

김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원안위 위원들의 공백으로, 원전 안전에 큰 공백이 생겼다"며 "원안위 위원들의 임기만료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 최인호 최고위원 등과 함께 경주 월성원전과 부산 고리원전을 찾아 강진 피해 현황 조사를 벌였다.

birakoca@news1.kr



김경수 의원이 13일 오전 원전 안전 점검차 경북 월성원전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원전 안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재난문자 상당히 제한적"

(서울=뉴스1) 김영신, 김정률 기자 = 국민안전처는 13일 경북 경주에서 전날 발생한 지진에 대한 재난 문자 발송이 늦고 안전처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던 사태에 대해 "(절차적으로) 재난 문자 발송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과부하로 인해 홈페이지가 다운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안전처가 지진에 대해 지휘·대응을 했지만 국민들께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문자 알람 서비스와 관련해 먼저 "일정 규모의 지진이 나면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와 언론사에 동시에 통보한다"며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자막(속보)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기상청이 지진 발생 장소와 규모를 발표하면 국민안전처가 긴급재난 문자 서비스(CBS)를 하는 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다"면서 "이동통신 3사로 보내는데 전국에 다 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이유로 "(지진의 여파가) 미치는 것을 분석해서 (여파가 미치는 이들에

게) 보내야 하는데, 우리 기술로는 분석이 어렵다"며 "기상청의 통보 후 전국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를 발송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 발송이 늦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 5.1 규모의 지진이 났을 땐 반경 120km 안, 2차 5.8 규모 지진이 났을 땐 반경 200km 안으로 문자를 발송했다"며 "진도 분석 시간을 단축하긴 했지만 문자 알람을 위한 연구에 국내 기술이 아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홈페이지 다운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니 과부하로 인해 다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안전처 측의 이같은 해명에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eriwhat@news1.kr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무제한 BBQ 스페셜

All You Can Eat!
맛있는 배부름~~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COURSE "A" \$25.95

불고기/짜들백기/치킨 테리야키/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통살/돼지 불고기/곱창구이/돈까스/치킨캐스
야채/피전/순두부찌개/당장찌개/계란찜/공기밥/안주 튀김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통삼구이/특대찌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푸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허리구이
오살불고기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짜들백기/갈비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키/불닭/모듬 야채구이/순두부찌개
당장찌개/계란찜/공기밥/피전



영업 시간

화-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90-95인)



특징하고 맛있는
수라 BBQ와 함께
소주 한잔 어때요?

수라 BBQ 보스턴
781.391.5606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도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북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첨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첨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추미애-박대통령, 靑회동서 사사건건 대립...향후 정국 '흐림'

사드 배치·대북 특사 파견 등에 이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청와대 회동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협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만남은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8차례 여야 지도부 회동 가운데 첫 여성 대표와의 만남이라는 데서 관심을 모았지만 서로 평행선만 그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지난 2014년에는 박영선 의원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자격으로 박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다.

박 대통령과 추 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해결 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였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해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약 1시간55분간 진행된 이날 회동은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제1야당 수장인 추 대표에게 "동반자로서 기대한다"고 했고, 이에 추 대표는 "아주 힘드실 텐데 이렇게 흔쾌히 회담 제의를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든 USB를 국회가 그려진 쇼핑백에 넣어 선물하기도 했다. 선물을 받은 박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본격적인 회동에 들어가는 박 대통령과 추 대표는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안보와 관련해 추미애 대표는 "안보에 여야가 없는 만큼 정부와 함께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정부는 제재에만

치중하고 있다. 제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대북 특사를 보낼 것을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은 거절했다.

박 대통령은 "대화를 해서 의미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들은 대화의 시간에도 핵고도화를 멈추지 않았다"며 "국제공조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추 대표가 '대통령도 북한에 특사로 간직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북특사가 아니라 민간 단체를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추 대표는 "군사적으로 사드는 핵을 막을 수 없고, 백해무익하다"고 한 반면 박 대통령은 "(사드는)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자위권 차원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청와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여야 3당과의 합의를 제안했지만,

추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 배석했던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대화 중 언성이 높아지진 않았지만,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지도 않았다.

윤 수석대변인은 회동 뒤 "오늘 회

담에서 소통의 높은 절벽을 느꼈다"며 "회담보다는 대통령의 안보교육 강연에 가까웠다"고 꼬집었다.

이번 회동은 지난 5월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3당 대표 회동을 분기별로 정례화한 데 따른 것이지만 향후 회동 날씨는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parksj@news1.kr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2016년 상반기 기동부대 지휘검열에서 기동대와 의경부대원들이 불발사위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 "경찰, 직사살수 위험성 알면서도 금지안해"

"납품업자 매뉴얼 '경고' 표시 외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경찰청이 살수차를 납품받을 당시 납품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살수차 매뉴얼에는 사람에게 직접 살수할 경우 사망이나 중상에 이를 정도로 위험해 직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년식 전진 취급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사람이나 물건을 향해 살수할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살수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방수포에서 분사되는 물을 사람을 향해 직접 살수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라벨표시에 '경고'라고 표시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 매뉴얼이 살수차업체에서 제작했다는 점에서 살수차의 위험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임에도 경찰청이 직사살수를 금지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사전에 직사살수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면 오늘날 백남기씨와 같은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왜 경찰청이 위험성을 알고도 직사살수를 강행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이 언급한 백남기씨(70)는 지난해 11월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00일이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그의 이름을 딴 '백남기 농민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ddakbom@news1.kr

백남기 농민 청문회, 경찰 과잉진압 의혹 공방 치열

강신명 전 청장 등 당시 경찰수뇌부 증인 출석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오전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 불명 상태인 백남기 농민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최고 지휘관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사건 발생 당시 경찰 핵심간부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안행위는 이들에게 △민중총궐기 집회 대응 및 갑호비상명령 발동 △혼합살수와 염료살수 관련 사전허가 △살수차운용 교육과 살수명령·현장지휘 △물대포 직접살수 등과 관련한 사항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참고인으로는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백씨의 두 딸, 구급차운전자 등 18명이며 이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야당은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안행위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씨의 부상 정도에 대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라는 의사 소견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정우 의원은 "백씨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44분이나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골든 타임'을 놓친 경찰의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살수차 운용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국민을 중태에 빠지게 한 데 대해 아직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3당은 지난 2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애초 8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정기국회 첫날인 전날(1일) 본회의가 무산되는 상황에 따라 청문회는 이날 열리게 됐다.

parksj@news1.kr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희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6 마리아 행전



•일시: 2016년 10월 5-7일 (수-금) 10:00am-1:30pm
 •장소: 보스톤 온누리교회 (73 Pine St. Woburn, MA 01801)
 •강사: 곽성환 목사 (얼바인 온누리교회, 전 빛과 소금 편집장, 두란노 목회 연구원장 '바울 따라잡기' 저자)

•강의 내용:

	오전 (10:00 - 11:30)	오후 (12:00-1:30)
10/5 수	인생의 재발견 (행 18:9-11)	
10/6 목	복음의 재발견 (고전 15:1-11)	'성경 꿰뚫기' 특강
10/7 금	교회의 재발견 (엡 1:23)	

문의 : 보스톤 온누리 교회 여성서약 /978-809-5953/ eunjoo00@gmail.com

바울 따라잡기

1일 특별 강의

신약성경의 주요 저자이며 1세기 복음 전파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도바울과 그의 행적을 따라 살펴봄으로 초기 기독교의 전파과정과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대상

-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
- 초기 기독교사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
- 장,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
-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 배우기 원하시는 분

강의 일정

날짜 : 2016년 10월 1일 (토요일)
 시간 : 9:00am - 3:00pm
 장소 : 보스톤 온누리교회
 73 Pine St. Woburn, MA 01801
 등록 및 문의 : 617-997-3548
 bostonnuri2014@gmail.com



강사: 곽성환 목사
 '바울따라잡기' 저자, 장로회 신학대학원(M.Div., Th.M.) 졸업, 현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경교육담당, 전 빛과소금 편집장, 두란노 목회연구원장, CGN성경특강

Onnuri
 Boston Church
 보스톤 온누리교회

(생명의 삶에 10월 8일로 홍보된 일정이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회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개인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BERKSHIRE HATHAWAY | **N.E. Prime Properties**
HomeServic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그동안 보스톤 뉴스타 부동산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 경제계의 대부인 웨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Berkshire Hathaway)와 새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폭 넓은 정보와 질 높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게 됨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의 새 얼굴인 버크셔 해서웨이 뉴잉글랜드 프라임은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도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미 전역에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일하실 큰 꿈을 키우고 계신 에이전트 선생님을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ichael Yoon
617.459.5985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개막 주간 마친 NFL 파워랭킹 탑4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9월이 시작되면서 NFL의 2016 시즌도 시작되었다. 시즌 개막 전부터 각 팀들의 전력에 대해 많은 분석과 예상이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각 팀별로 1경기씩을 마친 시점에서, 시즌 초반 NFL에서 가장 강한 4팀을 살펴보자.

4. Pittsburgh Steelers

스틸러스의 오피시브 라인은 예상했던 대로 강했다. 비록 먼데이 나잇 풋볼로 치러진 게임에서 초반 스틸러스는 오피시브 라인이 고전하며 러닝 게임으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오피시브 라인은 안정되었다.

빅 벤과 안토니오 브라운 콤비는 여전히 리그 최고의 조합이었다. 말 그대로 최고의 쿼터백-리시버 조합을 보여주었다. 전통적으로 수비에 강한 팀답게 디펜시브 라인과 라인배커 역시 빠르고 강한 몸놀림을 보여주었다.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계속 건강하다면, 올해 스틸러스의 앞날은 밝아 보인다.

3. Carolina Panthers

지난 시즌에 팬서스는 적어도 정규 시즌 최고의 팀이었다. 비록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슈퍼볼에서 패배했지만 팬서스는 여전히 강팀이다.

지난 시즌 슈퍼볼에서 만났던 팀을 시즌 개막전에 만난다는 것은 그리 반

갑지 않은 일이다. 쿼터백 캠 뉴튼을 비롯한 팬서스 선수들은 여전히 젊고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다. 다만 전국적인 경기에서 기량을 펼치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

팬서스는 시즌 개막전에서 패배하며 0승 1패로 2016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1패는 그리 큰 숫자가 아니다. 팬서스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규시즌에서는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팀이 될 것이다.

2. Denver Broncos

올해부터 스타팅 쿼터백으로 브롱코스의 공격을 이끌게 된 트레버 시미안은 2015년에 드래프트로 선발되어 지난 시즌에 딱 1번 경기에 출전했다. 패이튼 매닝이 은퇴하고 브록 오스웰러가 텍산스로 이적하면서 제 3 쿼터백이었던 시미안이 전격적으로 주전 쿼터백이 된 것이다.

프로 무대의 경험이 거의 없는 시미안이지만, 개막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충분히 합격점을 받고도 남는다. 시미안은 모든 각도에서, 포켓의 안과 밖에서 모두 정확한 패스를 선보였다.

작년에 브롱코스가 슈퍼볼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브롱코스의 수비는 여전히 강력하다. 브롱코스는 올해도 정상까지 이를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

1. New England Patriots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지미 거라폴로는 백업이 아닌 스타팅 쿼터백다운 실력을 보였다

패트리어츠가 개막전에서 만난 카디널스는 지난 시즌 NFC 챔피언십까지 올라간 강팀이다. 그리고 패트리어츠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쿼터백 탐 브래디와 부상으로 결장한 랍 그롱코스키 등 핵심 전력이 빠진 상태였다. 많은 이들이 카디널스의 낙승을 예상했지만, 패트리어츠는 예상을 깨고 승리

를 거두었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패트리어츠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지미 거라폴로는 백업 쿼터백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주전 쿼터백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보여준 거라폴로는 올해가 지나면 패트리어츠와의 계약이 종료된다. 벌써부터 거라폴로의 몸값이 폭등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매년 패트리어츠는 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약점이 지적되었지만 빌 벨리치 감독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 왔다. 올해 역시 벨리치 감독은 패트리어츠만의 방식으로 시즌을 시작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이대호, 대타 출전 안타...시애틀 8연승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가 대타로 출전해 안타를 추가했다.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대타로 출전했지만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고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는 결장했다.

이대호는 14일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대타로 출전, 2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이대호의 타율은 0.261에서 0.263으로 상승했다.

시애틀은 7회초 선두타자 벨슨 크루즈가 솔로 홈런을 쳐 2-1로 리드를 잡았다. 그리고 1사 주자 없는 상황, 다니엘 보겔바르타석 때 이대호가 대신 타석에 들어섰다.

이대호는 라미레스의 초구 97.1마일 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중전 안타를 기록했다. 하지만 후속 타자들이 안타를 치지 못해 득점을 올리는 못했다.

이후 1루 수비로 투입된 이대호는 9회초 다시 한 번 타석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대호는 중견수 플라이에 그치면서 멀티히트 경기에는 실패했다.

시애틀은 이날 에인절스에 2-1로 승리했다

. 시애틀은 연승행진을 8경기로 늘리면서 78승68패(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2위)가 됐다.

강정호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 교체 출전, 1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타율은 0.269에서 0.268로 떨어졌다.

강정호는 팀이 2-6으로 뒤진 7회초 2사 1, 2루 찬스에서 아담 프레이저 대신 타석에 들어섰다. 이에 필라델피아도 구원투수 에두브레이 라모스를 등판시켰다.

강정호는 라모스의 변화구를 공략하지 못했다. 강정호는 라모스의 슬라이더 4개에 배트를 휘두르지 못한 채 루킹 삼진을 당했다.

강정호는 7회말 수비에서 투수와 교체되면서 이날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피츠버그는 2-6으로 필라델피아에 패했다. 피츠버그는 70승74패(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가 됐다.

볼티모어는 14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2연승에 성공한 볼티모어는 시즌 80승(65패)째를 달성했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선두 보스턴(81승64패)과의 승차는 1경기로 좁혔다.



시애틀 매리너스 이대호

5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오던 김현수는 이날 휴식을 취했다. 김현수는 올해 타율 0.308 출루율 0.389를 기록 중이다.

볼티모어 선발 케빈 가우스먼은 8이닝 4피안타 1볼넷 6탈삼진으로 역투, 팀 승리를 이끌었다. 가우스먼은 시즌 8승째를 달성했다. 승부를 결정지은 것은 마크 트럼보의 한 방

이었다. 트럼보는 2회초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서 상대 선발 릭 포셀로의 초구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겼다.

볼티모어는 마지막 9회말 마무리 잭 브리튼을 투입했다. 브리튼은 9회말을 무실점으로 막고 1점차 승리를 지켜냈다.

yjra@news1.kr

P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oine Duval Parish of Corpus Christi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임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교리시간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환영회 : 9월 11일 주일 교중미사 후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0:00am(영어미사), 11:30am(교중미사),
4:30pm(청년주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길이고 권리와 기쁨의 길입니다 (행 13:46)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기도회 / 저녁 7시
송년 / 송년 / 찬양 / 경오봉부설회 / 청년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 12시 | LIFE 모임 / 주일 8시

담임 목사 / 무지함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임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37.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I49에서 15분 거리

유체부: 밀알경 목사
유체부: 김경숙 목사
유체부: David Hwang 권도사
유체부: 1500 Brian Kim 권도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SARANGJELGWO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S.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기종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평일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85, (978) 944-2404
www.sarajelgwo.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송고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진리 말씀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께 사모 사명하며,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진심, 온전, 진리, 사랑, 용서, 부활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송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주일 속회별
평일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port,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주 법세 관련 카드결제 관련회사로서 미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2it는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결제대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외 대표이사 겸 대표 **이선호**
781.266.7245



시와 음악의 오후 김소월 시 “새벽”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주최

작곡가: Frazin, Kim, Simon, Schnauber
바리톤: David Kravitz
피아노: Linda Osborn

번역: 남세교
통역: Yivanna Yi
www.kcsBoston.org / 781.223.4411

새벽
낙엽에 발이 숨는 못물 가에
우뚝우뚝한 나무 그림자
물빛조차 어슴프러이 떠오르는데
나 혼자 섰노라
아직도 아직도
동녘 하늘은 어두운가
천인에도 사랑눈물 구름되어
외로운 꿈의 배개 호렸는가
나의 님이여 그러나 그러나
고이도 불그스레 물결러와라
하늘 밝고 저녁에 섰는 구름
반달은 중천에 지새일 때

9월 18일 (일) 오후 4시, 무료 입장
Longy School of Music
27 Garden St, Cambridge, MA
(Residence Parking에 주차 가능)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9/30
혼다 오딧세이 2010년형 99,750마일
파워도어, 판매가격 \$12,500
T. 978-828-4850 (Luke)

9/2
산후조리 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T. 781-400-3929

9/16
Chelmsfords에 있는 Care Cleaners에서
매니저와 카운터 보실분 구합니다.
T. 603-401-0113

9/23
청소하실 부부구합니다.
영주권 소지자
T. 617-869-1698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8/26
뉴햄프셔 네슈아 한식/일식 식당 매매.
좋은 위치, 9년째 성업 중
T. 603-882-8644 (오후 4시 이후)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없는게 없습니다!

BOKO MART

BOKOMART.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안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안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CHA 캠프리지 주택공사 바우처 대기자 명단 접수

케임브리지 주택공사(Cambidge Housing Authority)는 2016년 10월 3일부터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HCV/Section 8) 프로그램 대기자 명단의 온라인 예비 신청서를 받습니다.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는 테넌트 베이스(이주가능) 또는 프로젝트 베이스 바우처 모두 포함됩니다.

최초 로터리 기간 2016년 10월 3일부터 31일
케임브리지 주택공사(HCA)에 10월 한달 동안 접수된 예비 신청서는 보관되었다가 10월 31일 이후에 대기자 명단에 배치됩니다. 전자 로터리를 통해 예비 신청서를 뽑아 무작위로 날짜와 시간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케임브리지 주택공사가 요구하는 선호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 가능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ambridge-housing.org/waitlist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이후에는
2016년 10월 31일 이후에 케임브리지 주택공사에 접수된 사전 신청서는 선착순에 따라 시간과 날짜가 배정됩니다. 선호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우선순위를 받게 됩니다.

케임브리지 주택 공사는 인종, 종교, 성별, 피부색, 출신국, 연령, 장애, 성 정체성, 성적 기호, 혼인여부, 가족 신분 등에 기초해 차별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장애인에게 프로그램, 서비스 및 각종활동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소득 자격 제한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가계 소득이 가족수에 기초해 아래와 같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 Person	2 Persons	3 Persons	4 Persons	5 Persons	6 Persons	7 Persons	8 Persons
\$14,950	\$19,250	\$44,150	\$49,050	\$53,000	\$56,900	\$60,850	\$64,750

예비신청서 접수시간 / 랩탑 장소
만약 컴퓨터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는 한인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소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LOCATIONS	DATES	TIMES
JEFFERSON PARK 1 Jackson Place Cambridge, MA 02140	Tuesdays: Oct. 4th, 11th, 18th, 25th	9 AM - 12 PM
CORCORAN PARK 1 Corcoran Lane Cambridge, MA 02138	Tuesdays: Oct. 4th, 11th, 18th, 25th	2 PM - 5 PM
FUTNAM GARDENS 64 Magee St., Cambridge, MA 02139	Wednesdays Oct. 5th, 12th, 19th, 26th	9 AM - 1 PM
CAMBRIDGE PUBLIC LIBRARY- BEECH ROOM 449 Broadway Cambridge, MA 02138	Wednesdays: Oct. 5th, 12th, 19th	3:30 PM - 7:30 PM
ROOSEVELT TOWERS 14 Roosevelt Towers Cambridge, MA 02141	Thursdays: Oct. 6th, 13th, 20th, 27th	9 AM - 12 PM
WASHINGTON ELMIS 131 Washington St., Cambridge, MA 02139	Thursdays: Oct. 6th, 13th, 20th, 27th	2 PM - 5 PM

예비 신청서 제출 및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cambridge-housing.org/waitlist

To request a reasonable accommodation, or to request a paper pre-application, please contact the housing authority at 617.520.6406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백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41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펠러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3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야구동맹(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양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617-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로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턴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617-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장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턴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영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얼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전차/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알골방	617-437-0378
송현미미용실	508-734-0446
순옥뷰티미용실	508-737-8636
신현철미용실	617-947-6293
에이비뷰티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은미용실(EXT.125)	603-770-3491
정윤숙미용실	617-236-8600
조현경미용실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승국

엔티비보스턴사업국 617-955-9112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인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의내과)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턴컨테드케어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키치아연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뉴욕)	

이제, 백내장도 '맞춤 백내장 수술' 시대!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 "백내장 수술도 이젠 개개인의 눈에 맞는 맞춤형 렌즈를 선택하세요"

백내장 수술도 시력교정 수술처럼 개인별 눈 상태에 따라 맞춤 백내장이 유행이다.

백내장은 수술 중 가장 많이 하는 안과 질환 수술이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수정체 노화 증상 질환이다.

백내장 수술은 60대에는 50%, 70대에는 70% 이상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60세 이상 입원성 질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안 질환이다.

백내장과 노안증상을 혹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년증상에 함께 찾아오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노안증상과 백내장증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안은 가까운 글자가 어느 날 흐릿하게 보이며 침침함을 동반한다고 하면 백내장의 경우는 시야가 전체적으로 뿌옇고 흐리게 보이며 오히려 어두운 곳에 가면 잘 보이는 현상을 동반할 수 있다.

백내장수술은 진단과 함께 바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

더라도 초기에 발견되면 약물로 진행을 더디게 해주는 치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수술을 권유 받게 된다. 그러나 약물 치료는 한다고 해서 노화된 수정체가 다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언젠가는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된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시기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데 백내장 수술을 너무 미루다가는 오히려 수술과정이 어렵거나 눈속의 백내장이 녹아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권유가 있다면 시기 적절하게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개 40대 이상이 되면 1~2년마다 눈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며,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이 발견될 때 정밀한 눈 검사를 통해 수술을 하게 된다.

◎ 개인별 맞춤 백내장 수술 각광 : 요즘 백내장 수술은 개인별 맞춤 백내장 수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노화된 수정체를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 어둡고 탁하게 보였던 시야를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으

며, 수술 안전성이 입증된 수술이므로 많은 백내장 환자들에게 수술 후 만족도가 아주 높다.

노인의 인구가 급증하고 활동성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사회현상과 함께 백내장 수술이 점점 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내장수술은 노화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내 눈에 가장 적합한 인공수정체로 삽입하기 때문에 질환치료수술이면서 노년에 안경을 벗을 수 있는 새로운 시력교정 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

백내장 수술에는 인공수정체 렌즈의 종류가 다양하고 내 눈에 맞는 맞춤형 백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단촛점 렌즈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곳에 한곳에만 초점을 맞추어 주는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방법으로 수술 후 근거리(독서 등 작은 글씨)는 돋보기 착용을 해야 한다. 둘째, 다촛점 렌즈는 렌즈 자체에 가까운 곳과 먼 곳 또는 중간지점이 보일 수 있도록 초점을 다양하게 맞추도록 만들어진 렌즈를 이용한 노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백내장 수술방법이다.

셋째, 난시가 있는 분들을 위한 단촛점 난시교정렌즈와 난시교정을 위한 다촛점 렌즈를 이용한 수술방법으로 그동안 난시로 인해 불편했던 안경으로부터 해방되고 동시에 선명한 시력 회복으로 백내장 제거가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단촛점 렌즈를 사용하여 양안의 비대칭도수수술을 하는 백내장 수술방법으로 우안은 멀리, 좌안은 가깝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노안레이저라식 라섹 수술과도 같은 방법이 있다. 다양한 렌즈가 존재하고 정확한 검



사를 통해 내 눈에 맞는 맞춤 백내장 수술법을 찾는 것은 노인이 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원시를 가진 어르신의 경우 그동안 사용했던 안경 또는 돋보기와 이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미처 젊은 시절 시력교정 레이저 수술을 받지 못하였던 어르신들에게도 안경도 벗고 돋보기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다시 찾아온 시력교정기회라고 본다.

최근 휴람 네트워크 좋은사람들 성모안과에서 비대칭 도수 백내장 수술을 받은 공@님(만54세)은 고도근시와 난시로 안경을 40년이상 착용하고 있다가 단촛점 난시교정 인공수정체 렌즈 맞춤 백내장 수술로 안경을 벗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된 점에 대하여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 20대~30대에게 시력교정 수술이 개개인별 맞춤수술이었던 것처럼 50대~60대 어르신들의 백내장 수술 또한 내 눈에 가장 적합하고 하는 일과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 정기적인 안중합검진도 추천 : 휴람-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의료사업팀 김수남 팀장은 대학병원급 검사

수술장비를 갖추고, 16년동안 개개인별 맞춤 시력 교정수술 및 노안수술, 백내장수술 등의 수많은 경험과 임상결과를 갖고 있는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박성진 원장님을 적극 추천하며 많은 백내장 환자들이 만족하는 수술법으로 고가의 다촛점 렌즈삽입 백내장 수술이 아니라도 비대칭 도수 백내장 수술방법은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은 가볍게 하고 수술 후 다촛점 렌즈 수술 결과보다도 더 선명한 시력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전했다.

김수남팀장은 그동안 무관심했던 눈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안중합검진을 통해 눈상태를 먼저 체크해보시길 적극 추천한다. 안중합검진은 최신식 정밀 검사장비로 1시간~1시30분 정도의 정밀검진과 박성진 원장님의 세밀한 진료까지 받아 눈 상태를 정밀하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및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보스톤 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호를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폭풍,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종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통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풍 및 척추측만 교정



개인기별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정렬 (#200reg, \$250)
- 7월18일 - 9월30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명보험(PO), 후쿠이, 학교/유학생/여행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고독한 카우보이, '매그니피센트7' 이병헌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올 추석 기대작 '매그니피센트7'이 전야 개봉하는 가운데 미공개 스틸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13일 전야 개봉하는 '매그니피센트7'은 정의가 사라진 마을을 지키기 위해 7인의 무법자들이 한데 모이게 되면서 통쾌한 복수를 시작하는 와일드 액션 블록버스터다.

이번에 공개된 스틸에는 덴젤 워싱턴, 크리스 프랫, 이병헌, 에단 호크의 새로운 단독 스틸 뿐만 아니라 특유의 분위기를 실감케 하는 전경 비주얼까지 담겨 있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높인다.

단독 스틸에서 배우들은 각각 캐릭터에 맞는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어 그 모습에 더욱 집중하게 하는데, 특히 이병헌은 고독함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어 그들에게 닥칠 사건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 스틸에서 역시 '매그니피센트7' 특유의 매력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떨어지는 석양을 배경으로 끝 없이 펼쳐진 들판을 달리는 이들의 실루엣은 가슴이 탁 트이는 모습으로 특유의 통쾌함을 전달하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마스터', 이병헌 X 강동원 X 김우빈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감시자들' 조의석 감독의 차기작이자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의 만남만으로 올 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혀온 '마스터'가 개봉 시기를 확정 짓고, 1차 예고편을 최초로 공개하며 그 실체를 드러냈다.

오는 12월 개봉하는 영화 '마스터'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조 단위 사기 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쫓는 지능범죄수사대와 희대의 사기범, 그리고 그의 브레인까지, 그들의 속고 속이는 추적을 그린 범죄오락액션 영화다. '마스터'의 1차 예고편은 명불허전 배우들의 새로운 변신과 폭발적 시너지, 그리고 필리핀 로케이션을 통해 완성한 이국적 볼거리를 짧

지만 강렬한 영상에 담았다. '마스터'의 1차 예고편은 청명한 하늘에서 필리핀의 거친 뒷골목으로 이어지는 카메라 무빙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는 뒷모습으로 시작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다. 각자의 목적을 향해 어디론가 향하는 세 인물의 등장에 이어 "사기? 그게 조 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라는 도발적 질문을 건네는 희대의 사기범 진희장(이병헌 분), 이에 맞서 "이번 사건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써버린 머리 잘 라낸다"며 진희장을 향한 추격의 의지를 드러내는 지능범죄수사팀장 김재명(강동원 분)의 팽팽한 모습으로 긴장감을 조인다.

aluem_chang@news1.kr



'벤허' 대서사를 즐기는 관람 포인트 3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벤허'가 추석 개봉작 중 예매율 1위에 오르며 예비 관객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개봉을 기념해 영화를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관람 포인트를 되짚어 봤다.

영화 '벤허'는 로마 시대, 형제와도 같은 친구의 배신으로 가문의 몰락과 함께 한 순간에 노예로 전락한 유대인 벤허의 위대한 복수를 그린 대서사 액션 블록버스터다.

드라마틱한 스토리와 스펙터클한 액션, 장엄한 메시지까지 삼박자가 어우러진 '벤허'는 '원티드'의 티무르 베크맘베토프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노예 12년'으로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한 존 리들리가 각본을 맡아 50년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원작을 가장 충실하게 그렸다.

1. 벤허 VS 메살라, 형제에서 적이 된 두 남자의 운명적 대결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 형제와도 같은 친구였던 벤허와 메살라, 두 남자의 운명적인 대결이다. 로마 제국시대, 예루살렘 최고 귀족인 벤허와 메살라는 친형제처럼 자란 친구다. 그러나 메살라의 배신으로 벤허는 가문의 몰락은 물론 가족 모두를 잃고 노예로 전락한다. 5년간의 혹독한 노예 생활 끝에 돌아온 벤허는 메살라와 로마 제국에 맞서 복수를 결심하고 목숨을 건 두 사람의 전차 경주가 시작되며 관객들의 기대감을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이처럼 한층 새롭고 거대해진 스케일과 함께 두 주인공의 대립을 통해 거룩하고 뜻깊은 메시지가 영화 전체를 관통한다. 배신으로 인한 분노와 증오, 용서 사이에서 고뇌하는 벤허의 인간적인 모습과 권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한 메살라의 모습은 시대 불변의 인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2. 전차경주 & 해상전투! 세기의 명장면 더욱 강렬하게 돌아오다

두 번째 관람포인트는 세기의 명장면으로 회자되는 전차장면과 해상 전투신의 강렬한 부활이다. '벤허'의 백미는 단연 숨막히는 전차 경주와 해상 전투 장면이다. 특히 흠뻑이 뒤덮인 경기장 위 펼쳐지는 목숨을 건 전차 경주는 보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을 쥐게 한다. 1959년 개봉 당시 전차

경주 장면은 아날로그 액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웅장한 스케일로 완성돼 수 많은 영화 팬들에게 지금까지도 세기의 명장면으로 손꼽힌다.

2016년 새로운 '벤허'의 하이라이트 역시 벤허와 메살라가 최후의 대결을 펼치는 전차 경주 장면이다. 배우들은 직접 전차 위에 올라 몸을 불사르는 액션 연기를 선보였고, 말과 전차가 어우러져 경기장을 누비는 모습은 액션캠 고프로(GOPRO) 카메라로 촬영해 사실감 넘치는 화면을 만들어냈다. 또한 해상전투 장면은 보다 리얼한 액션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버스 충돌 사고가 담긴 한국의 CCTV 영상에서 시각적인 영감을 받아 실제 그곳에 있는 듯한 실감나고 생동감 넘치는 액션 장면을 완성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3. 더욱 깊어진 용서와 구원,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

마지막 관람포인트는 한층 더 깊어진 용서와 구원 그리고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다. 2016년의 '벤허'가 지난 작품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예수 캐릭터에 새롭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1959년 작에서 종교적인 신성함을 이유로 예수는 얼굴 한 번 보이지 않고 뒷모습과 실루엣으로만 등장했으나, 이번 작품에서는 시대적인 분위기의 변화에 맞춰 보다 전면적으로 등장해 용서와 화해,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직접 전한다.

예수는 복수를 준비하는 벤허에게 진정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우고자 조연을 아끼지 않고, 핍박 받는 유대인들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베푼다. 티무르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예수를 사실적으로 그리고자 했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조명하고자 했다. 예수를 연기한 로드리고산토로는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저마다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다. 덕분에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지만 예수의 가르침, 영성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했고, 신화 너머에 있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축복을 하기도 해 전 세계적인 기대와 환대를 증명해 보인 바 있다.

aluem_chang@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9월 5일 ~ 2016년 9월 11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4.9%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3.5%
3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19.1%
4	KBS2	월화드라마(구르미그린달빛)	18.2%
5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17.0%
6	KBS2	해피선데이2부(1박2일)	17.0%
7	KBS1	KBS9시뉴스	16.2%
8	SBS	TV소셜(내 마음의 꽃비)	15.7%
9	MBC	무한도전	15.6%
10	KBS1	전국노래자랑	12.3%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2	SBS	TV소셜(저 하늘의 태양이)
3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4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5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6	SBS	일일드라마(당신은선물)
7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8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9	SBS	주말드라마(우리집순이)
10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내가 저지른 사랑	임창정
02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한동근
03	목요일 밤 (Feat. 빈지노)	어반자카파
04	휘파람	BLACKPINK
05	러시안 룰렛 (Russian Roulette)	레드벨벳
06	If You	에일리
07	그대라는 사치	한동근
08	puzzle	씨잼
09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10	너 그리고 나 (NAVILLERA)	여자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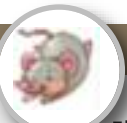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6				5	2		3	
1			9			7	8	
		2			1			5
	6				9			
		9		1		2		
			3				6	
9			1			8		
	4	3			8			6
	2		5	3				4

9월 18일 - 9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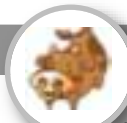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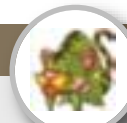
쥐띠 | 처음부터 잘해야

●운수: 처음부터 잘해야 합니다. 튼튼하게 잘 쌓지 않은 탑은 결국 오래가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금전: 조급한 마음을 비우세요. 괜한 욕심을 내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애정: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리도 없냐고 속으로만 한탄하지 마세요. 믿음직한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면 편안해질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소띠 |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운수: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를 것입니다. ●금전: 무경을 열어보아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금전적으로 유리한 변수가 생깁니다. ●애정: 부부의 마음이 화합하니 집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0,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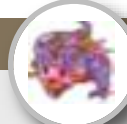
범띠 | 급하더라도 한 걸음부터

●운수: 갈 길은 멀고 할 일이 많은 때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입니다. ●금전: 필요 이상의 지출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원가를 구입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애정: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답답하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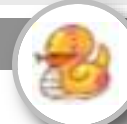
토끼띠 | 생각을 단순하게

●운수: 생각을 단순하게 하도록 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금전: 지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때문에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애정: 본의 아니게 지루 벗어나고 있습니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하는 말과 행동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9, 22일 길일. 21, 2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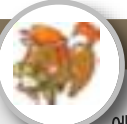
용띠 | 하루하루가 새롭고

●운수: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 하는 일을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금전: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한 것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일이 성사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입도 따라옵니다. ●애정: 작은 곳에서 행복을 느끼면 하루하루가 새롭고 신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3, 24일 길일. 21, 2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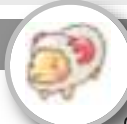
뱀띠 |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주는

●운수: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 가까이 에 좋은 정보가 있으니 귀 기울여서 듣고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금전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애정: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는 계기가 생깁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1, 24일 길일. 20,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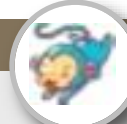
말띠 | 미리 대책을 세우고

●운수: 내 손에 없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금전: 생각지도 않게 지출할 일이 발생하거나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애정: 이왕에 봐줄 것이라면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어설피게 하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0, 22일 길일. 18, 24일 주의.



양띠 | 길게 내다보고

●운수: 갑자기 한꺼번에 밀렸던 일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길게 내다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면 그 덕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정: 서로가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해도 풀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8,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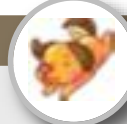
원숭이띠 | 행복으로 가는 계단에

●운수: 행복으로 가는 계단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훗날에 중요한 의미를 줄 것입니다. ●금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운세이니 여러 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은 적어지겠습니다. ●애정: 싱글은 새로운 만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서 흘러가는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9, 24일 길일. 18, 2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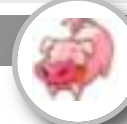
닭띠 | 빨리 대화로 풀어야

●운수: 제대로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안 하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정말 똑바로 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계약이나 거래는 시도하지 말아야 하는 때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애정: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해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심하게 되기 전에 빨리 대화로 풀어야 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9,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개띠 |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운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내일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금전: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니 매상이 증가합니다. 꼭 필요했던 것을 큰 마음 먹고 구입하게 되니 기분도 좋아집니다. ●애정: 이렇게 좋을 것을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3일 길일. 19, 22일 주의.



돼지띠 |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아야

●운수: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쓸데없는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도리어 방해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자신의 마음만 불편해집니다. ●애정: 영똥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밍다고 자식이나 다른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무한도전' 유재석X엑소

연습부터 방콕 무대까지...댄싱킹의 한 달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에서 엑소와 유재석의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공개된다.

유재석은 올해 초 방송된 MBC '무한도전'의 '행운의 편지' 특집에서 광희가 제안한 엑소의 합동 무대를 위해 이들의 방콕 콘서트 무대에 함께 올랐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유재석과 엑소의 연습, 그 첫 만남에서 슈퍼주니어 규현이 찾아와 함께했다. "엑소 보호차원에서 SM 대표로 나왔다"며 등장한 규현은 엑소 멤버들의 평소 모습을 폭로하며 웃음을 주기도 했다.

유재석과 엑소는 처음으로 함께 할 신곡의 안무 영상을 보기도 했다. 난이도 높은 안무 수준에 유재석은 물론 엑소 멤버들까지도 긴장하기도 했다. 곧 이어 녹음에 들어간 유재석에게 멤버들은 엑소 스타일로 노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해 수월하게 녹음을 마칠 수 있었다.



한편 중간점검을 위해 연습실을 찾은 '무한도전' 멤버들은 엑소와 유재석의 춤을 보고 "유재석이 엑소에 뒤지지 않는다"며 과한 칭찬을 연발해 유재석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 엑소의 화려한 댄스를 본 멤버들은 엑소에게 예능용 댄스를 가르쳐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유재석과 엑소가 약 한달 간 함께 한 연습 과정과 태국 방콕 최대 규모 공연장에서 펼친 콘서트 무대도 이번 방송에서 공개된다. 과연 유재석은 성공적으로 엑소와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일 수 있을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luem_chang@news1.kr



'주간아이돌', "정형돈 컴백 성사"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건강상의 문제로 방송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던 정형돈이 MBC에브리원 '주간아이돌'을 통해 방송 활동을 재개한다.

정형돈은 지난해 11월 활동 중단 선언 이후 건강 회복에만 전념해왔다. 그는 오랜 휴식기 끝에 1년여 만인 10월5일 '주간아이돌' 컴백을 알렸다.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정형돈의 복귀가 가시화됨에 따라 '주간아이돌' 컴백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주간아이돌' 제작진은 "프로그램이 성장하기까지

MC 정형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만큼 정형돈 역시 '주간아이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번 컴백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덧붙이며 오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임을 밝혔다.

또한 제작진 측은 "MC 정형돈이 1년여 만에 방송에 복귀하는 만큼 함께 노력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도 시청자들을 향해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aluem_chang@news1.kr

'라디오스타' 문세윤 "김숙, 현금 500만원 빌려줘" 감동

(서울=뉴스1스타) 이진욱 기자 = 개그맨 문세윤이 김숙과의 일화를 공개했다.

문세윤은 지난 14일 밤 11시10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 김숙에게 고마운 마

음을 드러냈다.

그는 생활고로 힘들던 시절 "아내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다. 고민 끝에 돌반지를 팔기로 결심했다. 내가 너무 못나 보였다. 김숙에게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누나가 현금으로 500만

원을 줄 테니까 여유가 되면 갚아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문세윤은 "돌반지를 움켜쥐고 평평 울었다"고 덧붙였다.

star@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I-495 on 10 exit / Newton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OTK 김원테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HB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9월 2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MBC | 옥중화 |
| 2 | KBS |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
| 3 | KBS | 여자의 비밀 |
| 4 | SBS | 사랑이 오네요 |
| 5 | MBC | 불어라 미풍아 |
| 6 | SBS | 당신은 선물 |
| 7 | MBC | 다시시작해 |
| 8 | KBS |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
| 9 | SBS | 우리 갑순이 |
| 10 | MBC | 좋은사람 |

티보플레이 9월 2째주 신규 방송

티보플레이 9월 2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부산행 | 공유, 마동석 |
| 1 | 터널 | 하정우, 배두나 |

'부산행', 주연부터 단역까지 모두가 주인공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부산행'이 드디어 1천만 고지를 점령했다. 개봉 전 유료시사로 변칙 개봉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정식 개봉 이후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며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B급 장르로 치부되던 좀비물을 영리한 상업영화로 만들어낸 연상호 감독의 능력도 칭송받았다.

배우들의 존재감 또한 대단했다. '좀비 잡는 남자' 마동석을 비롯해 공유·김수안 부녀의 열연, 만삭의 상태로 고군분투하는 정유미, 이기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김의성 등 살아있는 캐릭터들이 영화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

러닝타임 118분이 아쉬울 만큼 빠르게 극이 전개된다. 밀폐된 열차안, 아비규환 속에서 각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배우들의 모습은 좀비라는 비현실적 소재 속에서 현실과의 접점을 이끌어내며 관객들의 몰입을 돕는다.

공유는 좀비 연기를 펼친 배우들에 대해 "관절을 꺾고 그로테스크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건 그분들의 역량이다. 그런 걸 구사할 수 있는 배우들은 한정적이었다. 영화상에서 힘을 쥐어 하는 시퀀스에서 그분들의 힘이 컸다"며 "보물 같은 배우다. 다소 영성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쇄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줘야 하는데 너무나 잘해줬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uu84@news1.kr



역대급 인생 연기... '터널' 하정우, 1인 재난극의 장인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리얼 재난 드라마 '터널'은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무너진 터널 안에 고립된 한 남자와 그의 구조를 둘러싸고 변해가는 터널 밖의 이야기를 그린 리얼 재난 드라마다.

하정우는 터널 안에 홀로 고립된 평범한 가장 정수 역으로 분해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빠진 한 사람의 극과 극을 오가는 감정 변화를 200% 실감나는 연기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꼭 구하러 온다"는 구조대원의 말을 믿고 열악한 상황에도 낙담하지 않고 의연하게 견뎌나가는 정수.

그는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조금이나마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기 위해 차량

안에 있던 위생액으로 주변을 청소하는가 하면, 구조대 나갈 때를 대비해 손톱 깎이로 수염도 다듬으며 외모도 가꾼다. 물 한 모금도 쉽게 목 넘김 하지 않고 즐기며 마시고, 차 안에 있던 유일한 식량인 케이크는 물론 우연히 발견한 개사료까지 조금씩 음미하며 먹는다. 이렇듯 작은 것에 행복해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터널 안에서 적응해 나가는 그의 모습은 애처롭지만 웃음을 자아낸다. 이에 영화를 먼저 만나본 언론과 평단은 재난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로 분해 1인 재난극의 진수를 선보인 하정우의 열연에 극찬을 전하며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TBO PLAY

보스톤권각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pai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신영의 **세상 스케치**

56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분노(anger)의 물꼬뜨기...

무엇이든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편안하고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것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이것은 아닐까? 내 속의 '화(분노)'를 잘 다스리는 일 말이다. 그 어떤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에서는 서로 기본예의를 지키느라 별 탈이 없지만,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편안함과 함께 기대한 만큼에 대한 서운함도 생기게 되는 것이 삶인가 싶다. 이렇듯 가까운 관계일수록 편안하다는 이유 하나로 상대방을 쉬이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수심가측(水深可測)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한 지붕 아래에서 25년을 살아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남편의 속과 남편이 다 알지 못하는 아내인 내 속이 존재하지 않던가. 그렇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없는 서로 각기 다른 존귀한 존재인 까닭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옳은데 너는 내 옳음을 몰라준다는 데 있다. 상대방이 내

음을 몰라주니 속이 답답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도 남도 아닌 제일 가까운 사이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부싸움은 어느 가정이나 큰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불씨가 되어 나중에는 끄기 힘든 큰불이 되기도 한다. 무작정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부부간에 잦은 싸움은 서로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자녀들의 성장에 불안감을 주고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의 말다툼이나 싸움이 어떤 이유로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잘잘못은 가리지 않고 무조건 아이들 앞이라고 쉬쉬거리며 참는 것이 제대로 된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분노(anger)는 보통 약자에게서 더욱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입장에서 있을 때 더욱 쌓이는 것이다. 어느 장소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고 싶은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그런 결과가 반

복되었을 때 분노는 쌓이게 된다. 자신을 마음 어떤 자리에서도 표현하며 살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어떤 관계에서든 자신의 속 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삭이고 참고 견디며 사는 이들도 아직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의 친구들은 자기표현이 확실해 좋다.

화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화를 참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보편적이라는 말을 적용하면 어울리는 말일까. 시도때도없이 발각, 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다.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 그 곁의 사람들조차 그 사람의 그 화에 시들해지고 나잇값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그렇다, 정말 그 화보다 내 마음을 조금은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나 역시도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다. 어른 노릇하기가 어찌 그리 쉽지만 하겠는가. 아랫사람 앞에서 제대로 화를 잘 내야 윗사람 대접받는 세상 아니던가.

화(분노)를 제대로 잘 낼 수 있는 사람이 멋쟁이는 아닐까 싶다. 그것은 그만큼 보통 사람과 때와 장소에 따라 화를 제대로 못 내고 살기 때문이다. 소소한 개인적인 이기적

인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은 때로는 참으로 우습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 아닌 그리고 그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된 화(분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설령, 그 분노로 자신 개인에게는 손해가 올지라도 말이다. 이렇듯 정의로운 분노(Righteous anger), 그 의로운 화는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불씨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때로 어떤 일에 대한 제대로 된 화나 분노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입으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간에 감정으로 시작된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서로에게 아픈 상처만 남기고 서로를 갇아먹는 아니 자신을 갇아먹는 행위일 뿐이다. 제대로 된 분노(anger)는 서로를 살리는 에너지로 쓰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개인적인 사소한 감정으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신의 속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기본 좋게 털어놓는 것이다. 싸움을 위한 분노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내어놓는다면 저절로 흘러간다. 트인 물꼬를 따라.

한담객설閑談客說: 스마트폰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달이 떴다고 전화 주시다니요.

2016.9

추석이 지났다. 송편은 드셨는가. 한가위엔 달이 가장 크고 밝다. 얼마나 크던지 어느 해에는 달속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다. 추석엔 고향의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안부전화하는 때이기도 하다. 전화에는 휴대 폰을 이용한다. 하나하나한 소리 다시했다.

지난 달이다. 일이 있어 한국을 방문했다. 인천공항에 내려 필요한 곳에 전화해야 했다. 내 스마트폰에 입력된 카카오 톡을 믿었다. 카톡은 당연히 한국에서는 풀려야 한다. 그런데, 불통이었다. 조작하는데 미숙했던 거다. 당혹감은 깊었고, 절망으로 이어졌다. 카톡을 너무 믿었던 바, 전화번호를 제대로 적어 오지 않았다. 더운 한국공기가 두겹게 내 어깨를 감쌌다. 나중에야 발견했다. 간단히 버튼 하나 누르는 걸 알지 못했던 거다. 다시 촌사람 되었다.

나야 새로 나오는 기기器機에 관심이 덜하다. 하지만 나보다 한 술 더 뜨는 양반도 있다. 내 스마트폰에는 펜이 달려 있다. 내 전화를 보더니 이 양반이 한마디 했다. 대화 녹취록이다.

-집사님: 이걸 내것과 모델이 같네. 현대, 이 모델은 안테나가 있네.

-나: ?

-집사님: (자신의 폰을 들여다 보며) 아니, 내 전화기에도 같은 안테나가 있군.

-나: 허걱???

-집사님: (앞뒤 사정을 알아채고는 멋적어서) 난, 이런 펜이 필요 없거든. 그냥 전화만 필요해.

-나: !!

이 양반은 한번도 펜을 사용하지 않은 거다. 아예 펜이란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틀림없다. 그러니 펜을 안테나로 오해한 거다. 아아, 터지는 웃음이며, 멈추어 다오. 그렇다고 나라고 뭘 잘 아는 건 아니다. 그저 전화기에 뭔가 메모 할 수 있다는게 신기했을 뿐이다. 새 모델 갤럭시 노트-7이 나왔단다. 한창 열풍을 일으키더니 삐걱한 모양이다. 배터리가 문제란다. 곧 해결되리라 믿는다. 김용택 시인이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 주시다니요.)

집사님이 둘째딸마저 결혼시킨다는 연락을 받았다. 축하합니다. 세상에, 한가위 달빛이 곱다고 전화 주시다니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이사야 30:26)

"Concert 휴(休) in Boston"

- Serenity, Repose & Inspiration -

September 18, 2016 (Sunday) at 7:00 pm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휴(休) [hju:]

The Concert 休(休) [hju:] is designated to create a unique performance in which classically trained opera singers perform various music genres beyond the classics—such as Broadway musical numbers, pop songs, and crossover music. In a casual setting. Both performers and audience will share great enjoyment and relaxation through music.



Heather Lee, Director
Seungho Jang, Music Consultant



Yuhwa Lee, Soprano

Ohayoung Kwon, Baritone

SeYoung Kwon, Soprano

Ji Eun Kim, Cello

E Jena Ryu, Piano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9. 주권 회복을 위한 만리 길 (1)

연방정부에 의한 부족 주권 재인정

1968년 존슨(Lyndon B. Johnson)대통령은 말살정책을 폐기하고 인디언의 자치권을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 다음 대통령들도 비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말살정책을 실질적으로 말살시키는 데에 힘을 쏟아 왔지만, 1988년에 와서야 의회합동결의안(House Concurrent Resolution 108)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말살정책은 폐기되었다.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전에도 의회가 1975년 인디언 자치 및 교육지원법(Indian Self-Determination and Education Assistance Act) 제정을 통하여 암묵적으로 말살정책을 종결시켰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은 인디언정책에 관한 특별담화에서 인디언 말살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말살정책이 폐지되고 자치권 인정의 시대로 바뀌에 따라 부족주권을 상실했던 부족들이 자치권 회복에 나섰다. 일부 부족은 쉽게 자치권을 연방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나 일부 부족은 아직도 자치권을 원상 복구시키기 위하여 큰돈을 써가며 법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인디언국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연방정부로부터 주권을 인정받은 부족국가는 566개이다.

19. 주권 회복을 위한 만리 길

라코타 공화국(The Republic of Lakota)
스스로를 라코타 자유특사(Lakota Free-

dom Delegation)라고 부르는 일단의 인디언이 2007년 1월 17일 워싱턴 국무부를 방문하여 한 장의 문서를 전달했다. 문서에는 라코타공화국(The Republic of Lakota)이 최근 독립을 선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이번 독립은 미연방으로부터의 탈퇴가 아니라 전으로부터 존재하던 주권의 재확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영토는 1851년에 맺어진 라라미조약에서 라코타의 소유라고 밝힌 땅으로 정하였는데 그 넓이는 한반도에 약간 못 미쳤다. 인구는 10만 명이라고 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치부되고 말았지만 이 사건이 던지는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동화정책으로 인디언이라는 작은 소금을 백인의 큰 물 속에서 녹여 없애려고 노력해도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다음으로 말살정책을 동원하여 소금을 분쇄기에 넣어 아예 갈아버리려고도 시도했으나 그 소금은 만년 이상을 버티온 다이아몬드만큼이나 야만 암염이어서 일부 모서리는 잘려 나갔으나 몸통은 온전히 보존되었던 것이다.

말살정책 추진으로 일부 온 나쁜 부족들은 주권을 잃고 연방정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끊어져 굶고 배고픈 암울한 세월을 살아오고 있을 즈음에 몇 줄기의 구원의 빛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인디언들도 영어를 할 줄 알게 되고 부족의 주권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흔히 홍인중운동(Red Power Movement)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저항운동을 벌이기 시

작하였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고향과 일터로 돌아온 인디언들은 백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전투를 치루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때마침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하는 흑인 민권운동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또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기에 인디언들의 권리 회복운동도 전과 다르게 전국적인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인디언의 권익 회복 운동은 크게 두 개의 축에 의해 추진되었다. 하나는 온건한 방법으로 추진되었고 또 하나는 실제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예로는 인디언의회(National Congress of American Indians)와 인디언권리기금(Native American Rights Fund) 등을 들 수 있으며 인디언운동(American Indian Movement)과 같은 행동주의 운동가들의 단체는 후자에 속한다.

인디언 의회(National Congress of American Indians)

미국정부와 맺은 조약과 인디언의 부족 주권을 무시하는 동화정책과 말살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 내 인디언 부족들이 모두 모여 1944년에 인디언 의회(National Congress of American Indians; NCAI)를 결성하였다. 인디언 의회는 인디언의 권리와 문화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디언 부족 간의 단합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보다 먼저 인디언 협회(Society of

American Indians)가 1911년에 설립되긴 하였지만 활동기간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1923년에 활동이 종료되었다. 이 밖에 인디언 단체로는 19세기말에 설립된 '인디언의 친구들(Friends of the Indians)' 이 있었고 1922년에는 또 다른 인디언 협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두 단체는 백인들 간의 모임이었다.

인디언 권리기금(The Native American Rights Fund)

1970년에는 인디언 권리기금(Native American Rights Fund; NARF)이 인디언의 법률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기금의 재원은 민간 재단으로부터의 출연과 연방정부 지원에 의존하였다. 기금의 활동은 주로 부족의 보전, 천연자원의 보전, 인디언의 인권보호, 인디언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디언의 법률 개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인디언의 권리와 문제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동 기금은 모든 인디언들이 보편적인 인권과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인디언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기존에 체결된 조약과 제정된 법률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감시자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45 화랑세기花郎世紀, 4세 풍월주風月主 이화랑二花郎(1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화랑의 아들인 원광법사는 숙명공주의 소생이다. 임신을 할때 공주는 이화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어, 화가 이화랑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자살을 하려 했다. 갑자기 금불이 와서 고하기를 “나는 곧 약사불藥師佛이다. 공주의 배를 빌려 머물고자 한다” 했다. 공주는 이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배례하니, 부처가 공주를 안고 엎드려져 마치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때 공 또한 공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궁중으로 침범했는데, 공주가 바로 누워 마치 품고 있는 것을 잃은 것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까닭을 묻고는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곧 부처의 원력이다” 했다. 몸을 숙고 낚으니, 과연 대성여래大聖如來이다.]

- 지금까지 '화랑세기'의 원문은 1995년에 출현된 발췌본이며, 이종욱이 번역한 '대역 화랑세기' (2005, 소나무)를 인용했다.

숙명공주는 지소태후(진흥왕의 어머니)와 이사부(태종) 사이에서 태어났다. 물론 지소태후의 남편은 입종이며, 진흥왕은 입종의 아들이다. 숙명공주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나오지 않고 화랑세기에만 등장하는 지소의 딸이다. 지소태후는 진골정통으로 왕통을 잇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진흥왕에게 이부異父의 딸인 숙명을 후비로 들이게 했다. 진흥왕은 어릴때 부터 왕후로 맞아들인 사도왕후를 사랑하였고, 숙명과는 동북의 남매지간인 지라 후비로 맞이하는데 탐탁치 않았고 부인으로 전혀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숙명의 배후세력, 즉 진골정통의 가계로 인하여, 하는 수 없이 후비로 맞아들였다. 그리고 진흥왕과 숙명공주 사이에서 아들 정숙이 태어났고, 진흥왕의 정비인 사도왕후의 장자 동륜이 있었지만 지소태후의 의도로 정숙이 태자가 되었다.

하지만 숙명은 공주시절 부터 통정한 이화랑이 있었으며, 왕후가 된 뒤에도 그들의 밀통은 지속되었다. 결국 그들의 사통 행각은 들통이 낳고, 급기야 둘은 궁밖으로 멀리 도망쳤다. 그로 인해 정숙태자는 혈통의 의심을 받게되어 폐태자되었으며 숙명왕후 역시 폐비가 되었다. 그리고 비위진 태자의 자리에 동륜이 올랐다. 사도왕후는 자신의 아들 동륜을 태자로 옹립하기 위하여 지소태후에게 이화랑과 숙명을 용서해 주길 간청하였고, 지소는 사랑하는 딸을 버릴 수 없어서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였다. 그 후 그들은 원광과 보리, 그리고 두 딸 화

명과 옥명을 낳았다. 원광은 우리나라 불교를 크게 증흥한 법사가 되었고, 보리는 화랑도의 12세 풍월주(591~596)를 역임했다. 이 보리공이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의 증조할아버지이다. 보리의 정처는 만풍부인이며, 이 만풍이 정숙태자의 딸이다. 또한 숙명의 두 딸 화명과 옥명은 진평왕의 후궁이 되었다.

화랑세기에서 보면 원광법사의 혈통이 뚜렷하다. 김대문의 증조할아버지이며, 이화랑의 아들이다. 이화랑의 아버지는 위화랑이고, 위화랑의 아버지는 섬신공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원광법사의 속성이 박씨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 원광서학조에 보면 '당숙고승전唐續高僧傳' 제13권을 인용하여 원광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라 황룡사의 중 원광의 속성은 박씨이다. 본래 삼한, 즉 변한 진한 마한에 살았으니, 원광은 곧 진한 사람이다. 대대로 해동에 살아 조상의 풍습이 멀리 계승되었다. 그는 도량이 넓고 컸으며, 글을 즐겨 읽어 현유玄儒와 자사子史도 연구하여 글 잘한다는 이름을 삼한에 떨쳤다."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은 더 배우고 싶어서 25세에 중국으로 갔다. 진陳나라로 가서 불교의 이치를 배우고는 그때까지 알았던 지식이 마치 씩은 지푸라기 같아서 진나라 임금에게 청하여


계를 받고 중이 되었다. 삼장三藏과 석론釋論을 두루 연구하였고, 끝으로 오나라 호구산에 올라가 불도를 닦으니 중의 무리들이 그의 설법을 들으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의 명망은 중국남방에 까지 전파되었고, 당시는 수隋나라의 문제가 진陳을 점령하였을 때였다. 그는 학문이 남방의 오월吳越을 통달했기에 북쪽의 주나라와 진秦나라의 문화를 보고자 589년에는 수나라 수도로 유학했다. 그의 설론攝論은 북쪽지방에서도 드날렸다. 이때 신라에서는 그의 명성을 듣고 수나라 임금에게 원광을 보내달라고 자주 청했다. 여러해 만에 돌아온 원광은 왕으로부터 성인聖人 대우를 받았다. 수레를 타고 궁궐을 출입하게 했으며, 의복과 약 그리고 음식을 왕이 직접 챙겼다. 그는 640년(신라 건국 58년) 황룡사에서 앓은 채로 9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이 때가 당나라 정관 14년이였다(일연이 인용한 '당숙고승전'에는 정관4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4년으로 함이 옳다고 고쳐 잡아 재기록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의 날 & 추석 페스티벌

KOREA FESTIVAL

 **Saturday, October 1st, 2016**
11:00am~5:00pm

Boston Common
69 Beacon St. Boston, MA 02108

 주관: 보스턴 한인회

행사준비위원장 : 윤미자 수석부회장 (978) 987-7388
보스턴 한인회 : 남진병 사무총장 (646) 220-3314



후원: 보스턴 총영사관, 보스턴 한인회보, 보스톤 코리아, 미주 태권도 교육 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 뉴햄프셔 한인회, 보스톤한미노인회, 화음보스톤첼버오케스트라, 국제선교회, 재미과학기술인협회, 뉴잉글랜드한국학교협의회, 충청향우회, 보스톤탁구협회, 로드아일랜드한인회, 보스톤산악회, 보스톤축구협회, 보스턴 체육회, 보스턴 야구협회, 보스턴 봉사회, 보스턴 세탁협회,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보스톤한미예술인협회, 보스톤재향군인회, 뉴잉글랜드 미국한인 시민협회, 메사추세츠 태권도 협회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내가 하면 신중함, 너가 하면 우유부단! (1)"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XVI -

사람은 누구나 신중함과 우유부단한 면이 있다. 특히,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함과 우유부단의 갈림길에 서서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모두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재미난 현상은 내가 결정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 하는 것은 신중함이라 보기가 쉽고, 남이 우물쭈물하면 우유부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다.

홀리의 남친은 대학교 일학년이 만나 6년을 사귀면서, 결혼하자는 말을 목 메달리게 기다리는 자신과의 결혼을 결정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남 주기는 아깝고, 자기가 갖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면이 있어 선택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 결국, 신중한 척 온갖 핑계를 다 잡는 동안, 지쳐버린 홀리는 그를 떠났다. 떠나면서 홀리는 남친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넌 내 마음 흐려 놓고, 중요할 때는 쏙 빠지고, 말해야 할 때는 입을 꼭 다물었어. 처음에는 신중함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지. 넌 어느 것 하나 손해를 안 보려 이리저리 계산하는 우유부단한 암체였어. 너 정말 그런 암체였니?" 물론, 홀리의 남친은 자신은 신중했음을 주장했다. 헤어진지 일 년도 안되어 스펙 좋은 새 여친을 만나,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버나드 쇼 묘지명이 생각나는 순간이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줄 알았다.' 홀리는 헤어지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가 보지 않

아도 될 진실을 보았다. 전 남친이 암체였음을. 가슴시린 배반감에 흘리는 너무 분하고, 아파하다 필자에게 테라피 요청을 했다.

신중함과 우유부단은 어려운 선택이라는 같은 출발점을 갖고있다. 하지만, 어려운 선택의 마지막 관문, 결과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우유부단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회피', 다 갖고싶어 버리지 못하고 계산하는 '욕심', 누군가의 선택과 결정에 길들여진 과잉보호와 흥수처럼 쏟아지는 과도한 정보로 인한 '결정장애' 로 인해, 참담한 상실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우물쭈물하다,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반면, 신중함은 자신이 책임을 지려는 고민을 하고, 자신이 욕심을 부리는 지 아닌지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일단,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면, 단호한 결정과 실행으로 옮길 줄 안다. 따라서,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가 없고, 또한 대부분 기적같은 좋은 결과를 얻게된다. 즉, 우유부단한 결정은 끝이 안 좋은 '악연' 이 되고, 신중한 결정은 끝이 좋은 '호연' 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유부단한 인연은 천룡이 맺어준 가족이 아니라면 끝나는 것이 현명하다.

핵 가족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내 자식만, 내 식구만 최고면 된다는 이기심은 많은 아이들에게 신데렐라 신드롬과 피터팬 신드롬을 심어주는 안타까운 사회구조를 형성되게 한다. 공부만 잘하면 자신이 원하는것을 쉽게 가질 수 있게하고, 내 자

식이 최고, 최고하면서 과잉 칭찬을 하면서 공부 1등의 결정을 세뇌시키는 부모가 많이 생겨나다보니,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하나의 결정만 하게 되면서, 어른이 되어도, 나머지는 부모가 다 결정해주는 우유부단한 결정장애 어른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있다.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브라이언의 아버지는 자신이 나온 대학교에 브라이언이 가야한다고 은근히 주입시켰다. 막상, 브라이언이 아버지가 나온 대학교에 도전했을 때, 학교는 브라이언의 합격을 연기(Defer)했다. 그러면서, 브라이언이 정식 학생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일년 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능력을 승인받아야 하는 조건을 걸었다. 자라면서, 자신의 결정보다 아버지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면서 결정장애를 갖게되었던 브라이언은 멀리 떨어져 혼자 결정해야하는 대학교 생활을 잘 하지 못했고, 결국 두 학기를 끝내고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의 합격을 포기해야만 했다.

브라이언은 이 실패로 더욱 우유부단한 어른아이가 되어갔다. 학교에서 쫓겨난 좌절감, 수모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죄의식으로 자신감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 어느 때 보다 부모의 배려와 이해가 너무도 절실했지만, 부모님은 브라이언을 침묵으로 냉대했다. 아버지는 억지로 브라이언을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로 보내려했던 책임을 우유부단하게 회피했고, 어머니는 중간에서 눈치를 보느라 우유부단 했다. 결국, 브라이언은 편집증(Paranoia) 증세

를 보이기 시작했고, 약을 과대복용하며 자살을 시도하고 말았다. 혼수 상태에 빠진 브라이언은 위급정신병동(Emergency Mental Health)으로 즉시 옮겨졌고, EMH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필자에게 테라피 요청이 들어왔다.

브라이언 아버지는 자신의 규율에 완벽할만큼 엄격하고 철저했다. 주일이면 앞장 서서 모든 신도들 앞에서 성경책을 읽었고, 이렇게 종교의 규율을 찬양하는 아버지는 양심과 배려의 의로운 사람으로 보였다. 남 앞에서 모든 것이 최고여야 하는 아버지의 은근한 요구는 브라이언의 식구들을 힘들게 했다. 아버지는 아버지 뜻대로 행동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때나, 실패를 했을 때 아버지는 차가운 권위주의자로 변했다. 신중하고 침착하고 책임을 지는 아버지로 보였지만, 사실 아버지의 권위의 침묵은 브라이언이 준 실패가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숨기려 침묵으로 우유부단 했고, 자신의 욕심때문에 억지로 자신이 가라는 대학교에 갔다가, 고생, 고생을 하는 브라이언의 아픔을 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우유부단했고, 침묵의 우유부단으로 완벽한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것이다. 브라이언의 아버지는 양가적 감정의 갈등을 피하려 자기 통제와 자기조절에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다음 칼럼을 통해, 브라이언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억눌린 내면 갈등이 주는 편집증과 브라이언의 우유부단의 관계성을 계속 이야기 하도록 한다.

TBO PLAY
보스톤권 지역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etc.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KOREAN

제1회 보스톤 한인 축제

FESTIVAL



**한인 학생회 또는 동아리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보스톤 한인회는 10월 1일 보스톤 커먼에서
제 1회 한인의 날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보스톤 한인회는 한인 유학생 학생회 또는 한인 동아리의
축제 참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코리안 페스티벌이 미국 사회에 한인의 저력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의 참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스톤 한인회

참가 신청 문의

**박진영(617.750.0207)
남병진(646.220.331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48) 은수저와 흙수저

한국에서 ‘은수저와 흙수저’ 라는 말이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산이 \$10 million 이상 되는 부자를 살펴봤는데 무려 80% 이상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큰 자산을 모은 방법이 직업(Jobs), 자영업(Small Business), 그리고 투자(Investments)로 자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How to invest your way to \$1 million, Money, Aug. 15, 2016)

미국에 이민 온 우리는 맨주먹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언어 소통은 조금 부족하지만, 맨발 투혼만은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로 부를 쌓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투자하면 일반 사람은 ‘주식 대박’ 을 기대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투자자 두, 세배로 뛰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투자자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폭박’ 으로 이어집니다. ‘주식 대박’ 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이 아니

도 적은 돈으로 꾸준히 투자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926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10%입니다. 주식시장이란 S&P500지수를 말하며 미국의 500대 기업입니다.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가? 언제 투자하는가? 언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는가? 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했다면 연평균 10%를 받은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 간단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머리(?)를 너무 쓰다 보니 잘못된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익률 10%란 투자한 돈은 7년 후 두 배로 증가합니다. \$100이 일 년 후 \$110 그리고 \$121, \$133으로 해가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대학 졸업하고 \$10,000을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40년 후에는 \$450,000으로 증가합니다.

은퇴하신 70세인 사람은 ‘나에게는 40년이란 시간이 없다.’ 라고 생각하며 투자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90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총 은퇴자산 50만 불 중에서 절반인 25만 불을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고 가정합시다. 수익률 10%로 계산하면 25만 불이 160만 불로 무려 6배로 증가합니다.

수익률 10%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30%

절감한 7%로 계산해 봅시다. 수익률 7%는 20년 후 95만 불로 거의 4배로 늘어납니다. 투자할 목돈이 없어도 적은 돈으로 꾸준히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개인 은퇴계좌(IRA)에 매년 \$5,500씩 10% 수익률은 20년 후 38만 불 30년 후에는 110만 불로 늘어납니다. 7% 수익률은 20년 후 26만 불 그리고 30년 후에는 62만 불로 늘어납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투자 돈은 늘어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결림돌이 있습니다. 투자경비입니다. 투자자 모두는 팍과 노력으로 한 푼 한 푼 번 돈이기에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푼을 소비할 때도 쿠폰을 사용하고 여기저기 다른 상점에 가서 가격도 비교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돈을 투자할 때는 경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투자경비 1%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50만 불을 7% 수익률로 20년 투자하면 \$1,934,842가 됩니다. 6% 수익률은 \$1,603,568이 됩니다. 차이가 \$331,274입니다. 단 1% 수익률 차이가 나중에는 무려 17% 차이가 발생합니다. 투자하며 발생하는 투자비용이 2%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에 34%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재정설계사가 뮤추얼 펀드에 손님 돈을 투자합니다. 뮤추얼 펀드 경비는 인덱스 펀드 경비보다 약 1%가 더 높습니다. 또한, 재정설계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이것은 약 5~6%입니다. 어뉴어티를 팔면 받는 수수료는 평균 8%입니다(New Rule’s Target: Annuities, WSJ, Feb. 9, 2016). 또한, 어뉴어티에 부과되는 평균 경비는 매년 3%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경비를 내면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그만큼 적어집니다.

지난 30년 주식시장의 연평균은 11%입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기가 손해만 보지 않아도 만족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습니다. 수익률 11%란 단 \$100,000 투자가 20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돈이 불어나지 않는 이유 첫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경비 때문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는 인식해야 합니다.

적은 돈이라고 꾸준히 투자하면 ‘은수저’ 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라이프 스타일의 승리를 위해서

아이템을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관건이 되고 있다. 99센트였던 커피를 4불짜리로 팔수 있는 스타벅스는 아이템을 파는 것이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방법으로 99센트커피를 4불짜리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대답은 total experience이다. 즉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물물교환의 행동이 아니고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는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커피를 평범한 가게에서 미리 내려놓은 주전자에서 따라주는 물물 교환이 아니고 커피전문점의 깔끔한 인테리어에서 손님이 주문할때마다 새로 갈아서 내려주는 개개인의 개성을 경험해 주게하는 것이다.

설령 새로 가게를 꾸미고 종업원을 교육시키고 최고의 원자재를 구입할 자본이 없더라도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면 라이프 스타일의 창출이 가능하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중에 너무 바쁜 식당이 있다. 항상 사람들이 붐벼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넘치는데 이 음식점에서는 물물교환하기에도 바쁠텐데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것은 물물교환 단계로 끝난다. 내가 돈을 내고 맛있는 음식을 받는다.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 제공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업원수를 충분히 했고 항상 음식점내외의 청결을 유지했고 화장실은 수시로 청결시켰고 기다리는 손님들에게는 간단한 음료와 샘플 에피타이저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음식점이 다른 경쟁업소에 비해서 조금 비싸도 항상 많은 손님들이 붐비는 이유는 라이프 스타일의 경험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는 같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같은 인테리어에서 판다는 불리함에 라이프 스타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언젠가 CNBC에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의 특징을 보도한적이 있는데 같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라도 그 성공률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 차이가 종업원의 친절만큼 화장실의 청결유지였다.

만일 물물교환이 오직 비즈니스의 성공기준이라면 싼 가격의 물건이 이길 것이다. 싼 가격으로 경쟁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다른 곳에서 경비를 절감해야한다. 음식가격을 낮추는데 목적을 둔다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종업원수를 줄여야한다. 원자재도 낮은 품질을 납품받아야 한다. 식당에 의자가 빠져거려도 망가지기 전에는 고칠수가 없다. 화장실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래도 음식 가격은 이 동네서 제일 싸다. 제 질문은 과연 성공할수 있을까요?

라이프 스타일의 제공은 결코 돈이 있어 야만 되는것도 아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벌써 상대가 그걸 느낄수 있다. 사람들은 가끔 교만한 생각을 할때가 있다. 내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 마음속으로는 미워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미물도 누가 자신을 이빠하는지를 느낄수 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 느낌을 모를리가 없다. 문제는 진심어린 친절인 것이다.

리스팅 프레젠테이션은 주택을 팔 생각을 갖고 있는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이 리스iting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언제 어떻게 왜 얼마큼 손님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으로 나에게 항상 기대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내가 손님에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첫번째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

난주는 오히려 반대였다. 나를 반겨준 손님과의 대화에서 오히려 나는 그분들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했다. 은 시간중에도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가능해 보는 기회를 그분들이 제공해 주었다. 미팅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만 했다. 그날 나는 새로운것을 배웠다. 라이프 스타일의 경험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일상생활 어느곳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앤젤라 엄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턴 아카데미는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대학 진학을 위한 GPS : 스탠퍼드”

캘리포니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스탠퍼드는 올해에도 지원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태평양을 바로 건너 아시아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을 많이 끌어 들였다. “좋은 날씨와 함께 최고의 대학”이라는 인기가 지속되는 것은 아이비리그 대학과 다른 명문 대학들이 동부에 있는 것과 비교하여 스탠퍼드는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이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과 인도의 지원자들에게 캘리포니아는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욕에 비해 접근하기 편리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는 장점이 있다.

스탠퍼드가 위치한 실리콘밸리에는 구글,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등의 본사가 있기에 컴퓨터 관련 학문이나 첨단 산업, 그리고 벤처 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 대학은 특히 매력적이다. 최상위 수준의 대학원과 의대, 법대와 더불어 스탠퍼드는 공학, 생물학, 그리고 정치학 등에서 최고

의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스탠퍼드가 뛰어난 운동선수들, 예를 들어 테니스, 골프, 수영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에게도 인기가 높다는 점이다. 최근에 열렸던 2016 리오 올림픽에 참가한 스탠퍼드 선수는 39명으로 어떤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선발된 선수들보다 많았다.

올해 스탠퍼드의 지원자 수는 역대 최고인 총 43,997명으로서, 다시 한번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를 물리치고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되었다. 스탠퍼드는 전체 지원자 중에서 불과 4.8% (2,063명)만 합격시켰는데, 이는 이 대학 역사상 가장 낮은 합격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올해 스탠퍼드를 지원한 학생수가 하버드 지원자 수(39,044명)보다 거의 5천명이나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기록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 명문 대학 중에서 스탠퍼드의 인기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2,063명의 합격자 중에서 1/3은 지난 12

월 조기지원 (Early Action)을 통해 이미 합격한 학생들이다. 대기자명단 (Waitlist)에 오른 학생은 1,500명이 넘는데, 명문 대학들이 대기자명단에 더 많은 학생들을 올려 놓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헛된 희망”을 품고 속절없이 기다리거나 앓을까 걱정이 된다. 많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경우, 2천명 이상의 대기자명단을 발표하는데 실제 결원이 생기는 경우는 10-20명에 불과하다. 최근의 실상을 보면, 스탠퍼드, 하버드, 그리고 예일 대학은 대기자명단에서 심지어 단 한 명도 합격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만약에 상위 10위권 대학의 대기자명단에 들었다면, 그 대학 합격을 기다리기 보다는 이미 합격을 한 다른 대학에 진학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대기자명단에 들었다가 최종 합격한다는 것은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이 되었다.

스탠퍼드, 컬럼비아, 그리고 브라운 같은

대학들은 지원자 중에서 고교수석졸업자들만 해도 신입생 정원보다 많다. 올해 스탠퍼드를 지원한 4만명 이상의 학생 중에서 아마도 5천명 이상이 고교수석졸업자일 것이다. (미국에서만 36,000개 이상의 고등학교가 있음을 기억하라) 과거의 예를 보면, 이들 명문 대학들을 지원하는 고교수석 졸업자들 중에서 80% 이상이 불합격하였다. 이 사실은 입학사정관들이 단지 학교 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성적은 심사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학점이나 시험 성적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려고 한다. 즉 당신의 잠재력, 재능, 열정, 취미, 그리고 인성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들이 아시아 학생들이 가장 약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학 진학을 위해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할 때 이 점을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형법]

가격표를 바꾼 것도 절도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을 찾은 A씨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A씨는 한국계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A씨는 아울렛에서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핑크색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셔츠는 가격표가 떨어진 상태였고, 영어가 부족해서 가격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불편했던 A씨는 바로 옆에 같은 디자인과 감이었지만 색이 다른 셔츠를 여러 장 발견했습니다. 하얀색은 \$600으로 검정색은 \$400으로 그리고 노란색은 \$200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은 “차라리 잘 되었다. 혹시 알아? 더 낮은 가격에서 셔츠를 살 수 있을지?” 하며 그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인 \$200짜리 노란색 셔츠의 가격표를 떼어 들고 핑크색 셔츠와 함께 계산대에 섰습니다. 그 순간 아울렛 직원은 경찰에 전화를 했고 A씨는 영문도 모른채 경찰의 심문을 당하고 결국 절도죄로 기소되어 법원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핑크색 셔츠의 가격은 \$300이었고 아울렛 직원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물건을 숨겨 나가는

것 외에도 물건의 가격표를 다른 물건의 가격표와 바꾸거나 기존 가격표에 훼손을 가해 더 저렴한 가격에 계산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물건이 담긴 상자를 바꾸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고 하는 것도 절도로 봅니다. 하지만, 각 주는 이러한 행동이 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에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케이스를 심의하는 절차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단순히 가격표를 바꾸었다고 해서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가격표를 바꾼 사람이 알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고자 물건의 가격표를 바꾸거나 손상시킨 후 실제로 구입을 하고자 시도한 경우에 절도죄로 취급합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유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법원은 물건에 가격이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또한 가격표를 바꾼 사람의 의도, 구매 시도와 함께 고려하여 유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케이스에서 매사추세츠 변호사라면 물건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200 가격표가 물건의 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

지만 반드시 낮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점, 계산대에 서긴 했으나 구매에 대한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기 전에 경찰이 왔다는 점, 그리고 영어가 불편한 A씨의 특이 사항에 초점을 맞춰 변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객이 물건의 가격표를 바꿨더라도 매사추세츠 법에서는 “물건을 사려는 확실한 시도”가 있어야 유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면 A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뉴저지에서도 매사추세츠와 같이 가격표를 바꾼 사람의 의도와 실제 구매 시도를 고려합니다. 동시에 가격표를 바꾼 사람이 처음으로 기소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시도를 했는지도 고려합니다. 초범보다 재범의 경우 거의 2배 이상의 벌금이 청구됩니다. 뉴저지 경찰은 기소 과정에서 물건의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를 기소 절차의 초반에 고려하는데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배정되는 법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는 \$200달러 미만의 제품에 대한 절도는 지방 법원 (Municipal Court)에서, 나머지는 상급 법원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A씨는 핑크색 셔츠의 실제 가격이 \$300이었으므로 상급 법원에서 케이스를

심의할 것입니다. 뉴저지는 범죄 기록 삭제 (Expungement)제도가 잘 되어 있는 주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A씨가 뉴저지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고 초범이라면 이 사건은 판결이 나고 5년후에 기록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도의 경우 주변 정황과 기소된 사람의 의도, 특이사항이 결과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내용까지 하나하나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상점에 보안카메라가 있다면 촬영된 영상에 대한 검토도 빠질 수 없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사소해 보이는 증거 하나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도를 포함한 형사 케이스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리뷰가 필수적입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93845027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강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지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기업 고객

- 국제법
- 근용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업 및 M&A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성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디켓, 지적 법권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T | 617.489.1327 MA@SONGLAWFIRM.COM

MA OFFICE |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songlawfirm1
- songlawfirm LLC
- songlawfir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한국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대학교 근처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159,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우스터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225,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4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여러가지 컨비니언스 스토어 소유, 문의바람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로터리 (복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보스톤 교육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상담전화: 339.234.5255~7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욱 성장한
보스톤 교육원으로 여러분을
찾아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톤 교육원 임직원 일동

NEW OFFICE LOCATION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